

碩 士 學 位 論 文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

指 導 教 授   金   相   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 語 教 育 專 攻

김   새   미   오

1999年 8月

#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

指導教授 金 相 助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김 세 미 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세미오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放

김 세 미 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相 助

이 연구는 제주도 신촌 태생인 梅溪 李漢雨의 시세계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I 장에서는 『梅溪先生文集』의 텍스트를 정하고 문집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II 장에서는 梅溪의 생애와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梅溪가 살았던 순조, 헌종, 철종 대는 나라 안팎으로 급변하는 시기였고, 유교 중심의 사상도 차츰 변모해가던 때였다. 하지만, 梅溪는 어려서부터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의 집안 분위기는 학문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秋史와의 만남으로 그의 학문은 더욱 견고해졌고,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고 대과에 도전한다. 하지만,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제주도를 다시 돌아온다. 귀향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수양하면서 본연의 자신을 찾아 나간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梅溪의 詩世界를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항인 ‘科擧 落榜과 葛藤’에서는 과거 도전과 실패로 인한 갈등이 표출된 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신의 의지를 펼치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지만, 결국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제주로 되돌아오는 모습까지 알아보았다.

2항인 ‘天命 認識과 自然 歸依’에서는 과거에 실패하고 제주로 돌아온 梅溪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梅溪에게 천명은 과거 낙방이라는 어두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자연 속에서 점차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자연에 귀의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3항인 ‘修身 意志와 現實 超脫’에서는 그의 갈등 극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에 대한 고민과 미련으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천명으로 돌리고 자연에 귀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의 갈등 극복은 독서에서 시작된다. 감정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라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시련을 이겨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4항인 ‘瀛洲十景의 形象化’에서는 이 항은 梅溪 말년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梅溪를 비롯한 여러 선비들의 영주십경시의 내력, 창작 동기, 영향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梅溪의 시의 성격은 과거를 포기한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1항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갈등과 좌절이 나타나고 2항과 3항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해 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4항은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고 주변 경치에 대한 관심을 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國文抄錄>

I. 序 論 .....	1
II. 梅溪의 生涯와 社會的 背景 .....	6
III. 梅溪의 詩世界 .....	16
1. 科擧의 落榜과 挫折 .....	17
2. 天命 認識과 自然 歸依 .....	30
3. 修身 意志와 現實 超脫 .....	39
4. 瀛洲十景의 形象化 .....	56
IV. 結 論 .....	67
參 考 文 獻 .....	70
Abstract .....	73

# I. 序 論

이 논문은 제주도 신촌에 거주했던 梅溪 李漢雨(1823:순조23-1881:고종18)의 시 세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梅溪가 살았던 19세기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격변한 시기였다. 안으로 부패한 정권과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항거가 이어졌고, 밖으로 서구 열강들이 동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조선을 지탱하던 유교 중심의 가치관 역시 점차 무너져가던 추세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도 梅溪는 집안의 영향으로 유학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것은 갈등의 고비마다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냈던 梅溪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과거에 도전한다. 하지만, 당시 과거는 세도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차례 과거에 도전한다. 그러나, 낙방이라는 쓴 잔을 들고 天命과 孝道라는 명분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이 두 가지 명분은 모두 그가 어려서 익힌 유학의 가치관에 따른 행동인 셈이다. 과거에 포기하고 제주로 돌아온 후 자연에 귀의하고, 독서와 수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논자는 위의 사항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梅溪의 시 세계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첫째, ‘梅溪의 生涯와 社會的 背景’에 대한 고찰이다. 작가의 생애를 검토하는 것은 작가의 사회적인 배경은 물론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아왔던 자취를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작가의 갈등양상과 현실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梅溪의 詩 世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단락에서는 앞항에서 밝혀진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科學의 落榜과 挫折’이다. 이 항에서는 서울에서 느낀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다. 이 항의 시는 향시에 합격하고 서울에 머물면서 그가 느낀 향수와 과거 낙방에 따른 귀향까지의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2. ‘天命 認識과 自然 歸依’이다. 이 항에서는 과거에 실패하고 귀향을 한 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梅溪가 낙방이라는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천명과 자연에 귀의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 ‘修身 意志와 現實 超脫’에서는 독서를 통한 자기 수양과 현실 초탈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 ‘瀛洲十景의 形象化’에서는 영주십경시를 중심으로 하여 창작동기, 내력 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梅溪 시의 대체적인 양상은 과거에 대한 그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항은 과거에 대한 희망과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나왔던 고향에 대한 향수, 하지만 과거 낙방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시련의 詩群이다. 2항과 3항은 낙방에 따른 귀향과 과거 때문에 잊었던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한 고찰과 고달픈 현실을 이기기 위한 그의 의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梅溪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기 때문에 시의 성격을 위의 사항처럼 단계적으로 논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서로 시를 논하는 것은 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梅溪 선생의 글이 실린 책으로 세 종류의 필사본이 있다. 이 세 종류 중에서 비교적 문집의 형식을 갖춘 것은 『梅溪先生文集』으로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복사본만 남아 있다. 체제에 있어서도 오언절구, 오언율시, 오언고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영주십경시, 만가, 산문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른 필사본에 비해 비교적 치밀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논자는 이 필사본<sup>1)</sup>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 필사본은 金永吉이 번역<sup>2)</sup>하여 출판하였다. 김영길은 이 필사본 뒤에 安秉宅이 쓴 「梅溪先生行狀」을 함께 묶어 페이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논문의 페이지는 이 책에

1) 『梅溪先生文集』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서 부여한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번역은 김영길의 번역에 첨삭을 가하였다.

나머지 필사본 중 하나는 『諸家吟咏集』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책의 원본은 吳文福이 소장하고 있으며, 隆熙 元年 丁未年에 鶴臯洞(詩會인듯 함)이 기록했는데, 梅溪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의 글을 적어 놓고 있다. 梅溪 제자인 石湖 高永昕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듯 하다.<sup>3)</sup> 이 필사본의 경우 梅溪의 시를 따로 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에 있어서 난잡한 면이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제목도 적혀 있지 않고 다만 梅溪 시를 일정한 순서없이 적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집을 만들기 위해 미리 필사해 놓은 것인 듯 하다. 이 필사본 역시 원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

梅溪는 당시 제주사회에서 시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秋史와의 교유도 있었고<sup>4)</sup> 安達三, 金義正, 李啓徵, 高永昕과 같은 많은 제자를 배출했던<sup>5)</sup> 당시 제주 사회의 사표였다. 그의 제자였던 安達三, 李啓徵은 후일

		매계시	다른사람의 시	비 고
五言絶句		12편 12수	·	
五言律詩		6편 6수	1편 1수	襄庵
五言古詩		1편 1수		
七言絶句		49편 49수	2편 2수	草衣, 栗下 각 1 수
七言律詩		67편 70수	3편 3수	襄庵, 栗下, 公圭 각 1 수
瀛洲十景詩		11편 11수	55편 55수	栗下, 蘭谷, 蓮坡, 遇卿 각 11수
輓 歌	五言絶句	1편 1수	·	
	五言律詩	3편 3수	·	
	七言絶句	7편 9수	·	
	七言律詩	14편 14수	·	
소계		94편 99수	60편 60수	
散 文		15편		

2)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1998).

3) 『諸家吟咏集』에서는 여러 선비들의 시가 나오고 있지만, 梅溪와 石湖에게만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4)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7면.

李漢震 號梅溪 師事金秋史正喜 博學能詩 爲時宗主.

5) 「梅溪先生遺蹟碑」

蘆沙 奇正鎭 문하생으로<sup>6)</sup> 金義正은 勉庵 崔益鉉 유배시에 그의 문인<sup>7)</sup>이 되었다.

또한 『心齋集』의 「破閑錄」에서는 제주 문인들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는데, 高維를 시작으로 高兆基, 高得宗 등 여러 사람을 열거하면서 梅溪 또한 제주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당시 梅溪와 교유했던 吳泰稷, 金龍徵은 물론 제자인 安達三, 金義正까지 기록되어 있다.<sup>8)</sup> 安達三과 金義正의 경우 현재 발견되지는 않지만 함께 엮은 시집<sup>9)</sup>도 있고, 梅溪의 제자인 石湖 高永昕의 『石湖吟咏集』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제주 문학사에 있어 梅溪의 위치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다.

최근 제주문학에 대해 민속학, 민요, 방언은 물론 현대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문학분야는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소재영은 한문학과 제주문학에서 제주의 한문학 자료를 ①유배문학의 특수성과 자료 ②관인, 來訪客 문학과 자료 ③제주출신 문인의 문학과 자료로 나누어서 제주 한문학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sup>10)</sup> 이런 기준으로 각 분야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배인의 문학으로는 양순필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제주도를 중심으로><sup>11)</sup>부터 시작된다. 이후 桐溪, 尤庵, 勉庵, 冲庵에 대한 연구<sup>12)</sup>가

---

本州名碩如 小栢安達三 二樂李啓徵 海隱金義正 石湖高永昕 諸賢亦皆出於門下.

6)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9면.

李啓徵字慶運號二樂本古阜人奇蘆沙門人至行純嘿爲時所推.

安達三字行五號小栢本竹山人奇蘆沙門人從師北學以道德行誼稱.

7)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9면.

金義正 字佑卿 號海隱 本金海人 師事崔勉菴益鉉 博學工詩 庚寅噬仕參奉.

8) 金錫翼, 「破閑錄」, 『心齋集』(濟州文化, 1990), 289면.

耽羅人文 始發揮 於高僕射維 高平章兆基…高判尹得宗…吳進士泰稷 金進士龍徵 李梅溪漢震 安小栢達三 金參奉義正.

9) 「安行五小柏金遇卿蒲葵詩集序」, 『梅溪先生文集』, 115면

10)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탐라문화 15호), 1995.

11) 건국대박사논문, 1982. 이에 이 논문의 자료를 보완하여 『濟州流配文學研究』(제주문화, 1992)라는 단행본을 냈.

12) 다음의 논문에서는 각 인물들의 제주에서의 유배시가 연구되었다.

강성능,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비교적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문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둘째, 관인, 來訪客의 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濟州島 風土文學研究 - 朝鮮時代 來島文人을 중심으로><sup>13)</sup>가 있는데, 이 논문의 경우 제주풍토문학 범주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유배인이 아닌 白湖의 제주 풍물시 등을 다루고 있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來島人의 문학 연구는 유배문학에 비해 그 연구성과가 미미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출신 문인에 대한 연구는 高橋公明의 <高得宗 研究><sup>14)</sup>만이 확인된다. 이 논문의 경우 高得宗의 생애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고, 그 밖에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한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주도 문인에 대한 문학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한문학 연구가 뒤쳐진 이유는 제주도 한문학 자료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역 문학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학의 균형성과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큰 문제이며,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은 배가된다.

이 연구는 梅溪의 시 세계 규명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지역 한문학의 정리를 위한 시작으로 삼고자한다. 하지만, 문집의 구성상 시는 많고, 산문은 적어 시 해석에 있어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주도 한 지역의 시풍이지 제주도 전체의 문학적 분위기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산재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작품의 개별적 의미가 축소되는 한계를 지닌다.

---

고정우,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경희,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노인숙, <勉庵 崔益鉉 漢詩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8.

방정옥, <勉庵 崔益鉉 文學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의남, <尤庵 宋時烈의 詩文學攷>,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허철희, <勉庵 崔益鉉 詩文學攷>,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3) 韓敬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4) 탐라문화 10호, 1990.

## Ⅱ. 梅溪의 生涯와 社會的 背景

梅溪가 살았던 19세기의 조선왕조, 특히 純祖, 憲宗, 哲宗 3대는 정치, 사회의 모순으로 조선의 봉건질서는 급속하게 붕괴된다. 즉 세도 정치와 그 정치 아래의 관료체제, 수취체제의 문란에서 야기된 朝野 질서의 파탄이 그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왕권은 쇠약해졌고, 결국 왕조마저 衰殘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왕조의 쇠잔은, 먼저 관료체제의 부패로 露呈된다. 유교이념의 구현을 염원한 조선은 인재등용에 있어 과거 제도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의 관료들은 대부분 척족제도에 관계된 족벌이나 당색으로 충원되었고, 매관매직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료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여기에 관료층의 부정부패가 수반되고, 각 지방의 토호와 頑儒 및 아전들의 횡포가 뒤따랐다. 이와 같은 作弊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미봉책으로 끝나고 만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항거를 맞이하게 된다. 19세기의 수취체제는 三政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삼정의 문란은 결과적으로 농민층의 수탈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농민 항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도 아편전쟁(1839-1842)을 일으킨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의 열강들이 동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sup>15)</sup> 19세기의 조선왕조는 이렇게 안팎으로 시련의 시절을 맞고 있었다.

제주도 역시 본토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헌종 6년(1840) 12월에 영국 선박 2척이 가파도에 와서 총을 쏘며 牛畜을 약탈하여 간 사건이 발생하였고, 헌종 11년(1845) 6월에는 영국 선박이 우도에 나타났는데 도서 위에 작은 백색 깃발을 세워 섬 연안의 수심을 측량하고 돌로 방위를 표시하는 등<sup>16)</sup> 제주에서도 외세 진출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5(탐구당, 1983), 1~3쪽.

梅溪 李漢雨는 순조 23년(1823)인 癸未年에 全州李氏로 제주 新村里에서 태어났다. 원래의 이름은 漢震이었지만, 족보를 만들 때에 避嫌하는 바가 있어 震자를 雨자로 바꾸었다. 그의 자는 次文이고 梅溪는 그가 스스로 붙인 號이다.

그는 전주 이씨 桂城君 파이다. 계성군의 이름은 恂인데 성종의 아들이다. 아들이 없어서 月山大君派 德豐君 愷의 아들 瑠를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분이 桂林君이다. 계림군은 明宗 乙巳土禍에 모함을 당하였다가 宣祖 丁丑年에 伸冤으로 복위되었다. 을사사화는 왕실의 외척인 大尹, 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림의 禍獄으로 소윤이 대운을 몰아낸 사건이다. 이때부터 梅溪 집안은 왕족이면서도 권력 밖으로 밀려났고, 을사사화의禍는 계림군의 아들인 正陽君 誨에 이른다.

을사사화를 겪고 인조반정으로 다시 懷恩君 德仁이 정치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지만 沈器遠을 誤薦하였다는 이유로 인조 甲申年에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다. 회은군의 아들인 진사 彭馨도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입도 하였다가 아버지인 회은군의 죽음을 계기로 제주에 정착하게 된다. 彭馨은 비록 司馬試에 합격했지만, 계속된 참화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입도 후에도 彭馨의 아들 嘉義大夫의 得春은 仁祖 甲子年에 原從功臣으로 忠勳府에 勅命을 내렸다는 행적으로 보아 그의 집안이 비록 중앙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제주도내에서는 그 위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조할아버지는 秉完이고, 증조할아버지는 澤輝, 할아버지의 이름은 聖薰, 아버지의 이름은 信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다할 벼슬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김해김씨이고 외할아버지 이름은 德河였다.<sup>17)</sup>

梅溪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16) 김봉옥, 『제주통사』(제주문화, 1990), 181쪽.

17)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3면. 蓋聞 宣陵王子桂城君諱恂 無育取 德豐君諱愷 子諱瑠後焉 是爲桂林君 明宗乙巳被誣譏 宣祖丁丑伸復 正陽君諱誨 懷恩君諱德仁 並始禍終伸 三世遭遇 何其感也 懷恩君子進 士彭馨 始入海居焉 嘉義諱得春 以 仁朝甲子原從臣策命勳府 寔爲公十二世若十一世 高祖諱秉完 曾祖諱澤輝 祖諱聖薰 考諱信九 妣金海金氏 父諱德河.

더욱이 왕족이면서 몇 대째 벼슬이 없었기에 공부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는다. 양반이면서 벼슬이 없다는 것은 몰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집안의 요구에 의해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지방에서 실시했던 향시는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지만, 대과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조선은 몰락해 가는 시기였고, 각 분야에서 썩은 부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과거에 도전한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낙방이라는 비참한 결과뿐이었다. 그 후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제주로 돌아와서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 나선다.

梅溪의 삶이 과거에 낙방하여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밑바탕에는 집안분위기에서 형성된 유교적 가치관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이 비록 몇 대째 벼슬은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 서당을 열게 된다.<sup>18)</sup> 이러한 집안 분위기는 梅溪가 어려서부터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아! 가군께서 분연히 학문에 뜻을 두시어, 처음으로 집에 글방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도에게 봄과 여름에는 경작에 힘써 식물을 봉양하는 일을 받들게 하고, 겨울에는 공부하여 효도하고 어른을 섬기는 예의를 펴게 하였다. 몇 해 사이에 마을 분위기가 크게 변했으니 일곱, 여덟 살 아이들은 다 공부할 것을 알았고, 나무꾼은 나뭇짐을 지고 외우며, 농부들은 소뿔에 책을 걸어 놓고 읽었다. 매양, 서늘한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 밤엔 자주 책 읽는 소리를 거리에서 듣게 되어, 이 마을이 제일의 문향으로 일컬어졌다.<sup>19)</sup>

18) 『全州李氏世譜』, 卷二, 111쪽, 建塾興學 於面洞 慕尙之風 愈久愈遠.

19) 「學徒契座目序」, 『梅溪先生文集』, 120면. 猗 家君慨然有志好學 肇設家塾 教授鄉里 使其學徒 春夏耕作 供其奉養之職 秋冬講誦 申以孝悌之意 數年載間 鄉風丕變 七八歲兒 皆知向學 樵者負薪而誦 耕者掛角而讀 每於 新涼之秋雪月之夜 往往呶唔之聲 相聞乎閭巷 此村以第一文鄉稱焉.

梅溪 부친의 성품은 학문을 좋아하여 신촌에 서당을 세워, 식솔 봉양하는 일을 맡들게 하고 틈이 나면 책을 읽으면서 禮를 가르쳤다. 禮는 바로 유가의 중심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梅溪의 모친도 있고 없음에 구애받지 않고 손님 접대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학문하고 도를 실행하는 선비를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니<sup>20)</sup> 梅溪의 유교적 윤리와 성격 등은 부모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왕성한 학문의 분위기로 梅溪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유교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유교 가치관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효도에 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부모의 뜻을 따랐고, 음식에 먼저 입을 대지 않았으며, 일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명령이 있거나 없거나 거슬러 게으르지 않았으며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웃과 마을에서 본 이들은 모두 효자라 하여 기대를 가졌다. 자라서는 글 잘하는 이름에 가려져 특별히 그의 효성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든 몸소 실천하여,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효자로다 민자건이여!’ 하는 말을 생각하면, 梅溪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sup>21)</sup> 그의 효성을 짐작할 만하다.

하루는 병이 매우 위독해졌는데 마침 다음날이 아버님의 제삿날이었다. 온 집안이 어쩔 줄 몰라하며 제사를 중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이 ‘그러지 말라, 이 제사에는 내가 마땅히 직접 참여하고, 끝난 뒤에 당연히 아버님을 모시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다. 밤중에 공이 기어올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 제사를 보았다. 물러나서는 편안히 누워 자리를 바르게 하고 부녀자들을 물리치고 집안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20)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妣亦 承厚君子 黽勉 有無 供客無關 而知其爲文人 行士則 加厚焉.

21)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5면.

蓋誠孝公素性也 自幼少日 盡心順旨 食不先口 事無由己 無命不逆 無暇不離側 隣里見者 皆以孝童期待之 及長 文名揜之 無稱孝者 然其實則 家庭躬行與 文藝 俱進而 過之 … 중략 … 人無間 言 孝哉 閔子騫 想亦似此也否.

않고 돌아가셨으니, 이때가 太上王 辛巳年 정월 23일, 향년 59세이었다. 앞서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돌아가셨으니 또한 특이한 일이다. 하늘이 공의 정성된 효성을 사람들에게 보여 알리고자 하신 효험이런가?<sup>22)</sup>

위 글은 梅溪의 임종을 기록한 것으로 「梅溪先生行狀」과 「梅溪先生遺蹟碑」두 곳에 기록되어 있다. 어릴 적부터 성품이 효성스러웠고, 부모를 모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고자 했던 그가 아버지와 亡日을 같이 했다는 것은 신비감과 함께 하늘마저도 그의 효심에 감복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글에서는 梅溪의 효심과 함께 그의 강직한 성품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아픔은 뒤로하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려 했던 그의 끈은 성품이 그것이다. 기존의 규범은 是非를 떠나 규범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의 성격은 당시의 부패함을 알고도 여러 차례 과거에 도전했던 원칙론적인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梅溪가 살았던 19세기는 안팎으로 격변한 때였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그가 유교의 윤리와 가치로 살아가게 된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이와 같은 집안 분위기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열 다섯 살 이전에 널리 읽음이 여러 경서와 역사에 이르고 한, 위, 당, 송의 여러 학자의 책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서경에는 원개가 좌전을 좋아했던 것처럼 천 번이 넘게 읽었다.<sup>23)</sup>

위의 내용은 梅溪가 어려서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 중국의 여러 史書에 미쳤고, 특히 서경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書經을 좋아했다는 점은

22)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8면. 一日病革而 明朝適考公忌辰 舉家惶忙 欲權停祀事 公曰 毋爾也 今祀 吾當躬參 參後 吾當歸侍 夜分後 公強起 濯潔入 參還 而安枕正席 屏歸女 一言不及 家事而終卽 太上 辛巳 正月 二十三日而享年 五十九 不先不後 父子同日時而逝 亦異事 天欲以 公誠孝 示人爲驗耶.

23)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舞象前 已覽遍群經群史漢魏唐宋諸家 書 而於尙書 如元凱左癖 誦數過千遍 例治功冷.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은 天命이다. 천명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후에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뿌리를 내린다. 梅溪 역시 과거낙방의 시련을 천명으로 돌리면서 극복하고자 한다.

다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책을 두루 섭렵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남는 시간과 힘을 옛 책을 읽으며 게을리 하지 않았고, 비록 天文, 歷記, 山經 水誌, 律典, 兵書라도 통하지 않음이 없고, 쌓음이 넉넉하고 사용하여 모자람이 없었다<sup>24)</sup>고 하니 그의 독서와 학문에 대한 열정과 넓은 독서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독서는 과거 낙방 후에 방황하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는 과거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현실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아니었다. 梅溪의 「三政策」에는 그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철종 13년(1862)인 壬戌年에는 진주 민란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종은 三政策問을 내리고, 이에 응하는 각 지방의 三政疏가 올라오게 된다. 위정자와 지식인들의 삼정소는 철종 壬戌 13년 6월에서 閏 8월에 걸쳐서 呈疏되었으며, 그것은 그해 6월 12일에 있었던 국왕 철종의 三政策問에 대한 應旨上疏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진주민란은 당시 조선으로서는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왕은 이를 수습하기 위한 求言教를 내리게 되고 사대부 계층은 그 수습 방안을 진언하게 된 것이었다.<sup>25)</sup>

민란 직후에는 이들의 항거를 按撫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농민들의 지탄 대상이었던 관계 지방관과 아전들을 治罪하는 한편 항거의 주모자를 처형하는 등의 대책을 실행하였다. 한편, 삼정을 개혁하는 三政釐整廳(철종 13년)을 개설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근본 대책까지도 고려된 일이 있었지만, 三政釐政廳이 실효를 거두기도 전인 그해 8월에 철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사회 모순의 근본인 삼정의 문

24)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6면. 餘力卽 稽古不懈 雖天文歷紀山經水誌 律典兵書 靡不通念 故積之有餘 用之無乏.

25) 金容燮, 『韓國近代農業史研究』(일조각, 1984), 438쪽.

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무마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6)</sup>

진주 민란이 일어난 같은 해에 제주에서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民擾가 발생한다. 철종 11년(1860) 3월에 암행어사 沈東臣이 鄭愚鉉 목사의 非違를 적발하고 파직시켰는데, 철종 13년(1862) 2월에 도입한 任憲大목사도 여전히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 부역과 잡세를 면제해 주고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이로 인해 姜悌儉등이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건이 비화되면서 삼읍의 농민들이 성문을 부수고, 관영으로 난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sup>27)</sup> 『梅溪先生行狀』에서도 姜悌儉 사건에 대해 “壬戌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제주에서도 소요가 있었는데, 더욱 참혹해서 백성들이 장차 살아날 길이 없었고 두려워 누구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sup>28)</sup> 라고 그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다. 梅溪의 『三政策』은 이 시기에 쓰여진 글이다.

대저, 폐단은 갈수록 심해져 전에 비해 몇 갑절이나 되어 양은 헤아릴 수 없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정해진 한도가 없으니, 백성은 편안히 살지 못하고 많은 마을이 피폐해져 비게 되었습니다. 밭에 푸른 소나무가 늘어서 있어도 세금을 걷고, 전혀 수확이 없어도 거두며, 한 줌이나 한 묶음이냐는 오직 간사한 아전의 붓끝에 맡겨집니다. 결수를 숨기고 더함은 반이 욕심 많은 관리의 주머니 속 물건이 되고 맙니다. 서울에 이르러 각 관청에 바칠 때나, 임금님께 드리는 지방의 공물을 들고 내침에 이르러 담당하는 아전과 노비가 지나치게 거두니 정리로 주는 뇌물은 해마다 늘어 마침내 병통이 되었습니다.<sup>29)</sup>

2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탐구당, 1983), 1~3쪽.

27) 김봉옥, 『제주통사』(제주문화, 1990), 182 - 183쪽.

28)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7면.

嘗壬戌民擾時 本州亦擾 而尤酷慘 民將不遂生 而畏莫敢誰何.

29)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45-146 면.

大抵 結弊之愈往愈甚 比前倍蓰者 量無可巧 斂無定限 只以民不奠居 材多廢址 田或青松之陳稅 奈白地而徵 一把一束 惟恣奸吏筆端之弄 隱結加結 半作貪官橐中之物 至於京司 各營上納之時 御用供上 進排之際 所掌吏隸濫索 情賂歲加年贈 遂成



위 글은 田賦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세금의 기준은 토지였고, 토지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토지 측량도 들쭉날쭉 했고, 이러한 것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락하고 만다. 돈 많은 토호들은 측량하는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세금을 깎으려 했고, 이렇게 깎인 세금은 고스란히 무고한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못 내면 형벌을 주니, 부당한 세금과 형벌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마을에 남아 있기조차 힘들게 되었고, 마을은 자연스럽게 피폐해지게 되었다. 당시 향간에 떠도는 말에 ‘올리는 것은 한 께미요 인정을 거는데는 한 짐’<sup>30)</sup>란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뇌물의 심각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밖에 균전이나, 환곡의 병폐를 지적한 곳에서도 그의 철저했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그는 삼정 문란의 해결책으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차차 개선하자는 입장이어서 규범을 존중하는 그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회는 나날이 부패해 갔고 그는 이를 개혁하고자 여러 차례 과거에 도전한다. 스물도 안되어 과거장에서 명성을 얻었고, 단단히 짜여진 뛰어난 구절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는데,<sup>31)</sup> 이는 秋史 김정희와 제주 목사로 왔던 여러 선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承旨인 睦仁培 선생이 제주 목사로 내려와서 선비들에게 과제를 내는 과정을 설정했는데 공의 글이 늘 높이 뽑혔다. 睦목사는 공을 남국의 태산북두라고 칭찬하고, 공의 글을 다시는 批抹 가운데 늘어놓게 하지 않았다.<sup>32)</sup>

痼癘.

30)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46면. 諺所謂 進上一串 人情一駄.

31)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例治功令 未弱冠 有場屋聲 健篇傑句 多時人傳誦者.

32)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承旨睦仁培 來牧本州 設程課士 公之作 每每巍選 睦牧稱 以南國山斗 使不復編列於批抹中.

睦仁培 牧使는 철종 5년 癸丑年 12월 부임하여 乙卯年 8월까지 제주를 다스렸는데,<sup>33)</sup> 秋史가 유배에서 풀려 제주를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고, 梅溪가 30세가 되던 때이다. 그는 제주 향교에 啓聖祠를 건축하였고 社稷壇을 개축하였는데, 문집에서도 그와의 두터운 교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睦牧使의 생일잔치에서 지은 <敬次睦牧使仁培晬宴韻><sup>34)</sup>, 목사가 보인 운자를 보고 지었다는 <奉和睦牧使示諸生韻><sup>35)</sup> 睦牧使의 선정을 찬양하면서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奉和睦牧使留別諸生韻>二首<sup>36)</sup>에서는 끈끈한 인간적인 정까지 느끼게 한다. 또, 목사들이 부임해 왔을 때 당시 제주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교유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나이 23세 때에 부임한 목사 李宜湜<sup>37)</sup>과 瀛邱에서 지은 <三月旣望隨李牧使宜湜遊登瀛邱><sup>38)</sup>가 있는 것으로 보아, 梅溪가 당시에 벌써 제주의 대표적 문인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고 파악되며, 睦牧使 때에는 이미 제주의 대표적인 文士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된 듯 하다. 그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 秋史와의 만남으로 배가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 번 지방의 과거 시험에 붙었다는 것도<sup>39)</sup> 이 시기로 생각된다. 제주에서 여러 번의 향시에 합격하고, 梅溪는 大科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방하고 그는 귀향한다.

梅溪가 살았던 19세기는 말 그대로 소용돌이치는 시대였다. 국제적으로 서양 열강들이 동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고, 국내적으로 수취 제도와 과거제도의 부패로 각 지역에서 民擾가 발생하면서 조선은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린다. 이러한 때에 梅溪는 어릴 적부터 유학 사상을 익혔고, 이것은 그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잡는다. 그는 부패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

33) 金錫翼, 「耽羅觀風案」, 『心齋集』(濟州文化, 1990), 273면.

34) 『梅溪先生文集』, 54면.

35) 『梅溪先生文集』, 55면.

36) 『梅溪先生文集』, 7면.

37) 李宜湜은 「耽羅觀風案」에는 李宜植으로 기록되어 있다.

38) 『梅溪先生文集』, 3면.

39)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60면. 公之言曰 吾八航海 屢發解.

고, 이를 개혁하고자 과거에 도전을 했지만, 결국 부패한 현실 앞에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그의 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Ⅲ. 梅溪의 詩世界

이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梅溪의 생애를 기초로 하여 『梅溪先生文集』에 실린 154편의 시를 분석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科擧 落榜과 挫折 : 현실 참여 의지와 좌절, 이에 따른 귀향.
2. 天命 認識과 自然 歸依 : 현실 좌절의 극복 의지와 자연 귀의.
3. 修身 意志와 現實 超脫 : 독서와 자연을 통한 내면의 갈등 극복.
4. 瀛洲十景의 形象化 : 瀛洲十景詩의 창작 동기 및 영향 관계.

1항에서는 그의 과거 시험 도전과 실패, 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된 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의 의지를 현실에 펼치기 위한 과정으로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국 과거에 실패하고 만다. 실패에 따른 현실과 자신의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과 시인이 인식했던 당시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2항과 3항에서는 과거 낙방에 따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2항에서는 과거의 낙방을 천명으로 여기고, 자연에 귀의 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시들이다. 귀향 초기 시에서는 현실의 초탈까지 이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의 모습에 그친다. 하지만, 자연 귀의는 후에 그가 자신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3항에서는 독서와 자연 관조를 통한 갈등 극복과 현실 초탈을 내용으로 한다. 비록 귀향 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독서와 자연을 통해 본연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수신 의지, 풍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항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영주십경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주십경시가 지어진 내력과 구성 그리고 梅溪의 제주 자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감정의 변화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2항과 3항의 詩인 경우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본토와 제주를 왕복했기 때문에 과거 포기를 결심하기 전에 지은 것인지 그 후의 것인지 애매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어진 시기에 있어서의 혼란성은 인정하면서 본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 1. 科學의 落榜과 挫折

조선시대 양반 지배층을 관료로 채용하기 위한 선발 시험은 과거였다. 조선시대 과거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대단히 중시되었다. 이 때에도 蔭敍制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대상을 2품 이상의 관리 자제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반인 梅溪에게 과거 응시는 당연한 일이었고, 어려워지는 집안을 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은 과거 합격 뿐이었다.

나는 여덟 차례 바다를 건넜다. 여러 번 지방의 과거 시험에 붙었으며, 잃고 얻음에 분주히 돌아 다닌 것은 아버이를 위하여 뜻을 굽힌 것이다. 또한 나라의 법도에 과거가 아니고는 선비가 나아갈 길이 없으니, 어찌 傲然하게 앉아서 스스로 높이며 과거를 보지 않고 명망을 기를 수 있으리오? 오직 법도를 쫓아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이며, 얻고 잃음은 천명에 맡길 뿐이다.<sup>40)</sup>

위 구절에서는 梅溪의 과거 응시 동기에 대해서 잘 서술되어 있다. 첫

---

40)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60면.

吾八航海 屢發解 奔走於得失之場者 爲親屈也 且國規非科學 士無進路 豈合傲然自高廢 學養望哉 惟循規自盡 而得失則委命可也.

째는 아버님을 위한 급힘, 즉 집안의 요구였다. 梅溪 집안은 왕족이지만, 사회를 겪으면서 유배지인 제주로 쫓겨나듯 정착하게 되었다. 제주에서 벼슬을 한 조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고조부 이후로는 이렇다할 벼슬이 없는 것이 집안의 현실이었다. 둘째는 선비의 행동으로서 出處의 문제로, 세상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梅溪는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했다. 이러한 적극성은 선비 이전에 한 젊은이로서의 패기와 부패한 세상을 고치려는 호기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는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직 법도를 쫓아서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이나, 얻고 잃음은 천명에 맡길 뿐’이라는 구절에서는 주어진 결과에는 마음 두지 않고, 나라의 법규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梅溪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향사에서 합격한 그는 大科에 응시하기 위해서 서울에 머무르게 된다. 문집에서는 그가 서울 어느 곳에서 과거 공부를 했는지, 언제 과거에 응시했는지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이라는 타지에서 나타난 그의 대표적인 정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이다.

長安未歸客	서울에 남겨진 나그네
對酒雨纖纖	술상을 대하니 부슬비 촉촉히 내리네.
綠水通深港	검푸른 물은 깊은 뱃길로 이었건만
靑山擁短簷	푸른 산은 짧은 처마를 막아섰네.
梧桐秋氣薄	가을 기운 오동나무에 어리고
蟋蟀夜聲尖	귀뚜라미 소리 밤 되니 날카로워 진다.
揮塵清談足	세속 먼지 털어내는 이야기 풍족하니
晚風時動簾	저녁 바람이 때맞추어 발을 들추네. <sup>41)</sup>

위 시는 蘭谷 金亮洙와 서울에서 만나 화운하면서 지은 시이다. 蘭谷은 제주 조천 태생으로, 신촌과 조천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蘭谷과

41) <與金友子明拈韻>, 『梅溪先生文集』, 6면.

梅溪는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시 이외에도 문집에서는 영주십경시를 비롯한 여러 시에서 난곡과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고, 『蘭谷詩集』에서도 역시 梅溪와의 교유가 확인된다.

‘서울에 남겨졌다는 것’은 외로움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둘만이 만나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정감의 표현이다. 멀고 먼 타지에서 동향의 벼를 만나, 그 기쁨에 술상을 갖추었다. 게다가 촉촉하게 내리는 가랑비는 그들의 외로움과 정감을 더욱 북돋고 술맛은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함을 갖게 한다. 부슬거리는 가랑비는 서울을 꿰뚫는 한강으로 흐르고 한강은 바다로, 바다는 제주로 통한다. 이렇게 감정이 커지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원인이지만, 타지에서 느끼는 시인의 불안한 마음까지 알 수 있다. 점층적으로 커져 가는 그리움은 처마를 막아선 푸른 산에서 차단된다. 이런 차단은 상상을 막고, 시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 복귀는 그가 서울에 온 목적, 즉 과거 합격을 향한 그 자신만의 고독한 싸움을 의미하고, 그에게 과거 합격은 꿈의 성패가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푸른 산에 막혀도 그는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않는다. 四時의 운행에 어그러지지 않고 조화를 이룬 자연과 그 앞에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 함께 마실 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그의 행동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타향인 서울에서도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의 넉넉함은 마지막연에서 세속 먼지를 털어내는 맑은 담소로 이어지고, 저녁 경치를 맑고 담담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서울에서 동향 친구인 蘭谷을 만나며 느낀 감정을 시로 읊고 있다. 처음에는 타지 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에 잠시 어두워지지만, 여유를 갖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과거 합격을 향한 그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梅溪가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과거에 도전을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가 느끼는 것만큼 좋지는 않았다. 권력가들에 의한 세도 정치로 과거는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梅溪

역시 현재 과거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도리는 혼자서 운영할 수 없고, 실용성 없는 법도 저절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임금님께서서는 사람을 가려서 맡기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내려 줌이 마치 순임금, 우임금 때에 여섯 관부에서 잘 다스려 모든 공적을 넓히고 사악과 십이목이 공경하며 가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방백과 수령들은 과연 모두 그럴 만한 사람이고 한마음으로 전하의 뜻을 펼치며, 전하의 마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면, 곧 우리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이니 삼정을 시행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이 엎드려 임금님의 책문에서 子大夫로부터 親覽焉까지를 읽음에 두 손을 들어 백 배를 올렸고, 성인이 구원하고 돕는 성대한 보살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예전부터 인재를 얻는 것이 폐단을 고칠 요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재를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과거로 인재를 뽑았으니 예로부터 유명한 석학들이 과거로 뽑혀 나오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요즘, 과거의 규모는 더욱 넓어졌으나, 선비들의 자세는 단정치 않아 시골에서 오래 학문을 쌓은 선비들이 매양 이번 과거에서도 구슬을 놓쳤다고 탄식을 하니, 지금의 인재가 옛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엎드려 원하오니, 전하께옵서 과거의 규범을 엄하게 하고, 선비들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들을 인재로 키워 나라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면, 三政은 틀림없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sup>42)</sup>

위 글은 「三政策」의 마지막 부분이다. 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42)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50면.

然而君道不可以獨運 徒法不可以自行 有在擇人以任之 量能以授之 以若虞夏盛際 六府之允治 庶積之咸熙 曰四嶽曰十二牧 申之以往欽哉 今之爲方伯守令者 果皆其人而一心對揚 以殿下之心爲心 則吾東 其庶幾乎 於三政何有 臣伏讀 聖策自子大夫 止親覽焉 臣雙擎百拜 有以仰 聖人救助之盛 眷也 臣旣以得人 爲楛弊之要 而得入之道 有一焉 我朝旣以科目取人 自古名碩 莫不自科目中出來 近來科規蕩 然土趨不端 草野經綸之彥 每多遺珠之歎 人才之不逮於古 良以是矣 伏願殿下嚴科規 正土趨作成人才 需用國器 則惟茲三政 不期正而自正矣.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후, 마지막 결론으로 과거제도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당시 과거가 인재를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음은 梅溪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해서 눈을 감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규범을 중시하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인 그가 부패한 과거장에서 낙방한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결국 梅溪는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귀향을 결심하게 된다.

瀛州客病漢陽城	영주땅 나그네 한양성에서 병이 들어
賴得枯藤強起行	등나무 지팡이에 의지하여 애써 일어나네.
北斗星晨天上轉	북두성과 여러 별들이 하늘을 돌고
南山雲霧曉來晴	남산을 두른 구름은 아침이면 개이네.
材如燕石嗟無用	연석같은 재목이 애석히도 쓰이지 못하고
氣似龍泉尚不平	용천검같은 기상도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네 .
試向春塘臺下去	춘당대 더듬어 보고 내려가려니
杏花時節又清明	살구꽃 피는 청명의 절기로세. <sup>43)</sup>

위 시는 서울에서 병을 얻었을 때 지은 시인데, 과거에 낙방하고 귀향을 결심하며 지은 것이다. 제주에서 온 나그네가 서울에서 병들었다면 편안히 쉬어야 하지만,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누워 있지 못하고, 억지로 여기 저기 거닐고 있다. 배회하는 것은 갈등하는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그의 시선은 자연으로 이동한다. 밤하늘에는 어느 때와 똑같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남산을 둘러싼 구름도 아침이면 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북극성과 남산은 임금의 의미를 지닌다. 즉 임금의 聖明이 어두워져 남산이 구름에 가리운 것과 같이 자신의 진가를 몰라준다는 표현이다. 이런 감정은 다음 연으로 이어진다. 燕石과 같은 훌륭한 석재가 쓰이지 않고, 龍泉劍 같은 뛰어난 검이 묻혀 있다는 표현 속에는 세상에 대한

43) <病中吟>, 『梅溪先生文集』, 38면.

그의 불만과 부조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불만도 잠시일 뿐 그는 곧 낙방에 따른 귀향을 생각한다. 오랜 과거에서 지친 심신을 받아줄 곳은 꿈에도 그리는 고향, 하지만 과거에 실패한 귀향이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보던 곳이었던 春塘臺를 더듬고 내려가는 모습에서는 과거에 합격하여 세상에 펼쳐 보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를 접고,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아쉬움과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버리지 못한 과거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다.

귀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희망적이며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살구꽃 피고, 청명의 시절(杏花時節又清明)’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듯한 귀향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거 실패임을 주목할 때, 상대적으로 시인의 심적 갈등은 배가되어 분위기는 한없이 침울해진다. 이 시에는 金敬璨이 이 시를 듣고서 奇進士와 明禮館을 찾아와서 위문하였다는 부제<sup>44)</sup>가 있어 침울함을 더하고 있다.

造物多猜病此身	조물주 시기가 많아 이 몸이 병드니
櫻花虛度洛城春	앵두꽃 피어난 서울의 봄 헛되이 가네.
一年又值天中節	한해 더 머물러 다시 천중절이 되었을 때
千里相逢海外人	천리 먼 곳에서 바다 밖 사람을 만났네.
酒欲銷愁強勸客	술로 시름이나 달랠까 계속 술을 권하고
詩因感興倍思親	흥에 겨워 시 지으니 어머니 더욱 그림네.
故園時物君須記	고향의 시절 풍물을 그대는 기억하리니
櫻熟家家共薦新	앵두 익는 집집마다 천신제를 지내겠지. <sup>45)</sup>

위 시는 서울에서 단오날, 한성우윤과 공조참판을 지낸 愼尙欽의 아들인 裁芝와 제주사람인 蘭谷 金亮洙와 더불어 지은 시이다. 단오일은 민족의 명절이고, 명절이란 모든 사람에게 고향과 친척들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44) 『梅溪先生文集』, 38면. 長城金敬璨 素無面識 聞此詩 與奇進士 數人來 訪明禮館 問病.

45) <端午日 與愼載芝 金亮洙 二友 敘懷>, 『梅溪先生文集』, 39면.

타향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 감회도 남달랐다. 고향을 향한 마음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지만, 타지에 있어 그저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그것도 다시 맞이하는 명절이기에 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다시(又)’라는 시어는 ‘헛되이 가네(虛度)’라는 구절과 어울리면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낸다.

頭聯에서 조물주가 특별히 미워하여 병이 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건강 악화로 보기에는 너무도 격한 느낌이 있다. 이 구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 견딜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그의 마음 상태는 서울에서의 헛된 봄에서 더욱 더 깊어진다. 이러한 것은 모두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하늘의 원망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감정은 친구를 만나면서 내면화되고, 서로 強勸하면서 마시는 술에는 현실을 잊고 싶은 그의 불편한 심사가 숨어있다. 흔히, 술을 마시는 행동이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強勸하는 모습에서는 즐거움의 모습보다는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힘든 세상과 자신 사이의 부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심적 갈등과 세상과의 엇갈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강권하면서 마신 술로 잠시 번민과 시련을 잊는다.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감싸주던 그 정경, 어떤 잘못을 했어도 포근한 모습으로 어루만져 주던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시인의 귀향의지와 그가 겪는 어려움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위 시는 타지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격렬한 감정을 시의 맨 앞에 위치시킨 전체적 구성과 ‘虛度’, ‘一年又值天中節’, ‘酒欲銷愁強勸客’ 등의 시어와 시구로 인해 후반부에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더욱 더 애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가 과거의 실패로 향수가 깊어진다는 점은 이 시를 무겁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희망을 준다.

我家遙在海山中 내 집은 멀리 바다산에 있나니  
 橘竹桑麻綠映紅 굴나무, 대, 뽕나무, 삼이 울긋불긋 어울린 곳.  
 若對琴碁隨所好 제 좋을 대로 거문고 바둑을 따라 노닐면  
 眼前何時不春風 눈 앞에 어느 날엔들 봄바람 불지 않으랴.<sup>46)</sup>

이 시는 본토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지은 시이다. 전반부는 마치 본토 사람에게 신비스런 제주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듯하다. ‘멀리(遙)’나 ‘바다산(海山)’은 해남지역에서 겨우 꼭대기만 볼 수 있는 한라산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이미지로 다가섰을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春風’이라는 시어로 시상이 집약된다. 봄바람은 화창하고 포근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실패로 춥고 움츠린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시에서 시인은 봄바람을 ‘거문고와 바둑(琴碁)’을 통해 얻으려 하는데 이는 향락적인 오락이라기보다는 선비들이 즐기는 생활을 의미한다. 또, 마지막 구의 ‘何時’라는 시어에서는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한없이 기다리는 망부석 같은 심정과 언젠가는 꼭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교차한다.

위 시는 배를 기다리면서 고향의 풍물을 상상하며,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비록 지금은 과거에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자신에게 다시 올 春風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귀향이기에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五日過期十日期 닷 새 기한 넘으니 열흘이 기한일세  
 期期不到到何時 매 기한에 이르지 않으니 언제 오려나.  
 水千里又山千里 물길 천리에 산길도 천리이니  
 山亦難行水亦遲 산길도 넘기 힘들더니 물길마저 늦어지네.<sup>47)</sup>

46) <思家>, 『梅溪先生文集』, 18면.

47) <待舟>, 『梅溪先生文集』, 18면.

위 시는 과거에 낙방한 梅溪가 제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쓴 시이다. 예로부터 본토에서 제주로 가거나 오기 위해서는 뱃길을 이용했지만, 제주로 가는 바람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조차 즐거울 듯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겨진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너무도 지치다.

이렇게 지친 마음을 안아줄 곳이 고향이기에 그의 기다림은 더욱 애절하다. 하지만 오일, 다시 십일 동안 바람을 기다려도 바람은 오지 않는다. ‘期期’라는 시어에는 기다림에 지친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지치고 어지러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귀향이었지만 제주로 가는 바람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다시 생각나는 것은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일들 뿐, 이런 고생은 후반부에서 ‘물길 천리(水千里)’와 ‘산길 천리(山千里)’로 나타나고 다시 ‘산길도 넘기 힘들더니 물길마저 늦어지네.(山亦難行水亦遲)’는 말로 자신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亦’자는 자신의 역경을 겨우겨우 넘기면서 살아온 그의 모습을 읽을 수 있고, 앞으로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고향 떠나고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목표한 바는 이루지 못하고, 흩어진 마음을 정리하려 귀향하고자 하지만, 이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힘들고 답답할 뿐이다.

滿江疎雨雁來秋 가는 비 가득한 가을강엔 기러기 오고  
 遠客歸心留待舟 멀리 돌아갈 나그네 배 기다리네.  
 寒夢不知滄海闊 차가운 꿈은 바다 넓은 줄도 모르고  
 明月前夜到瀛洲 달이 밝은 전날 밤에 영주에 닿았네.<sup>48)</sup>

전반부의 경치는 내리는 가을비 사이로 멀리 기러기가 돌아오고, 한 척의 배가 떠날 준비를 하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한다. 그 속에 있는 시인의 모습은 빨리 이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곳은 날씨로

48) <夜中口占>, 『梅溪先生文集』, 17면.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몸은 갈 수 없지만, 생각만은 날아온 기러기처럼 날개를 펴고 고향으로 향한다. 가을이 되어 돌아오는 기러기는 이제 제주를 향하는 자신의 모습이고, 배가 못 떠서 얽매여 있는 시인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미묘한 갈등을 이룬다. 후반부는 이미 바다를 건넌 시인의 상상을 노래하고 있다. 꿈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는 모습이지만 과거 낙방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차가운 꿈(寒夢)’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 합격하고 귀향하고 있다면 느낄 수 없는 차가움이다. 이러한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도착한 고향은 비록 상상이지만, 즐겁고 온화하다. 달 밝은 밤은 그래도 아직은 포근한 고향의 따뜻한 품을 나타낸다.

이 시의 전반부는 시인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그려지고, 후반부에서는 꿈속에도 그리는 고향에 이미 도착하는 상상으로 되어 있어 미묘한 엇갈림을 갖게 한다. ‘疎雨’, ‘遠客’, ‘寒夢’ 등의 시어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깊이 가라앉지만,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귀향을 상상을 통해 이루는 마지막 구에서는 비록 초췌하지만,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띤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귀향이 기대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시 중 <夜中口占>, <思家>에서는 조금 밝은 모습의 귀향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과거의 결과를 天命이라 여기고, 得失에 연연하지 않으려 했지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랜 번민 끝에 결정한 귀향이기 때문이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생과 시련이 電光石火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오랜 시간의 공부에도 아무런 성과 없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어찌면 현실의 도피처럼 느꼈을 주위의 시선 또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비분함으로 나타난다.

天高木落夜無雲    높은 하늘 구름 없고 나뭇잎마저 지는 밤  
 月在江湖秋十分    달빛 물에 비쳐 가을이 짙었네.  
 誰把離騷歌慷慨    누구인가 이소 슬픈 노래 부르는 이  
 吾非楚客不堪聞    내가 굴원이 아니라도 들어 감당 못할레라.<sup>49)</sup>

전반부에서는 가을밤의 쓸쓸한 경치가 ‘木落’으로 나타난다. 가을 나무에서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은 벼슬에 대한 욕심을 하나하나 털어버리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양상한 가지만 남지만, 그런 양상함과 황량함에서 다시 희망의 싹은 트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의 쓸쓸함은 과거의 실패로 귀향하는 것을 말하고, 시인 자신이 과거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 쓸쓸함이 더욱 고조된다. 자신의 신념을 펴 보지도 못하고, 임금을 떠났다는 것은 곧바로 죄 없이 귀양간 굴원을 연상하게 된다. 그저 옆집의 어린아이가 책 읽는 소리일 뿐이지만, 慷慨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굴원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책 읽는 소리를 통해서 시인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책을 읽으면서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그였다. 하지만 결과는 과거 실패라는 초라한 결과와 천명이라는 명분으로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량한 모습뿐이다. 열심히 책 읽는 初學에게 선배로써 격려는 못하고, 자신의 초라함에 주목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답답함과 비분강개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비분한 감정은 바로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욕심을 냈던 것을 후회하고, 한편으로는 자괴하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三十讀書四十遊 서른까지 책 읽고 마흔에 교유했네.  
 浮雲如可執鞭求 말채찍 잡는 일 구함이야 뜬 구름같은 거지.  
 滄溟八渡緣何事 너른 바다 여덟 번 건넌이 무슨 이유인가?  
 自笑歸家近夜羞 혼자서 웃노라, 밤중에 집에 드는 부끄러움을.<sup>50)</sup>

위 시는 과거 실패 후 과거 공부를 정리하고 제주로 귀향하는 길에 지은 시인 듯하다. 제목부터 스스로 비웃는다 하여 비탄하고 자책하는 그의 감정이 나타난다. 自嘲의 원인은 과거 실패 때문이고, 청운의 희망에 부풀어서 한양을 찾았을 때와는 달리 과거 낙방이라는 쓴 맛을 본 梅溪의 맘은

49) <聞隣兒讀書>, 『梅溪先生文集』, 19면.

50) <自嘲>, 『梅溪先生文集』, 20면.

두렵기만 하다. 자신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부모 형제, 처, 자식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기 때문이다.

서른 지나 마흔까지 과거에 도전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실패 뿐이었다. 이제 그는 마부와 같은 하찮은 벼슬마저도 뜬구름처럼 여기고 있다. 또,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이 과거 공부를 했다는 사실조차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고, 급기야 자신을 자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자책은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고, 왜 자신이 여덟 번이나 바다를 건넜는가를 의심한다. 이는 하늘이 준 시련에 대한 시인의 항변이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지막 구에서 ‘밤중에 몰래 드는 부끄러움’은 不惑의 나이까지 분수도 모르고 과거에 집착했던 자신을 심하게 나무라며,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시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한 감정으로 이어져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이러한 긴장감은 ‘십 년 날을 갈아도 吹毛劍을 이루지 못했네(十年磨劍未吹毛)’<sup>51)</sup>나 ‘세속의 때를 끊지 못함을 웃네(自笑塵根猶未斷)’<sup>52)</sup> 등의 구절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그의 비통한 마음은 더욱 고조되고, 동정심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自愧感은 지금까지의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으로 연결된다.

漠漠雙飛彼白禽    멀리 짝으로 나는 저 하얀 새들  
倦投江柳暮煙深    어스름 깊어가는 강가 버드나무에 드네.  
是時見月陶微士    달 떠오르니 陶微士 뵈는 듯  
應悔浮雲出岫心    이제 뜬 구름 좇아 떠난 일을 후회하네.<sup>53)</sup>

전반부에서는 어둠이 깔리는 저녁에 새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흰 새는 이제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제

51) <謝劉襄庵贈詩>, 『梅溪先生文集』, 14면.


52) <宿竹城村>, 『梅溪先生文集』, 15면.

53) <景湖偶題>, 『梅溪先生文集』, 20면.



주로 가는 자신을 나타낸 것이고, 동적인 이미지가 정적인 이미지로 정리되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심정이 그만큼 편안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편안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전환이 일어난다. 承句에서 버드나무의 이미지는 五柳先生 도연명을 생각하게 한다. 彭澤에서 수령을 했다가 자신의 관직을 내팽개치고, 전원생활을 꿈꾸며 「歸去來辭」를 노래하며 기쁘게 고향으로 달려갔던 도연명을 본받지 못하고, 벼슬을 자신의 목숨인 것처럼 여겼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나타난다.

이 시에서 전반부의 편안한 마음을 끝까지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후회 때문이다. 이런 후회의 원인은 과거 실패에 따른 것이고, 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현재 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그 후회의 이면에는 패배의 감정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진한 후회의 감정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가려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忙笑人生命不同 씩스레 웃노니 인생 운명이 다름이여.  
 孰爲貧賤孰爲雄 누구는 빈천하고, 누구는 雄傑이런고.  
 早知名利非吾事 일찌기 명리가 내 일 아님을 알았더라면  
 退作田園樂志翁 전원예 물러나 앉아 내 뜻이나 즐겼을 것을.<sup>54)</sup>

전반부에서 사람의 운명이 다르다고 忙笑하는 것은 과거 낙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풍을 이어받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양을 쌓았지만, 과거라는 현실에서는 실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운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은 승구에서 貧賤과 雄傑 모두를 초월하고자 하는 어조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기만 하다. 과거합격이라는 신념 하나로 살다가 낙방이라는 현실을 운명으로 여기고 탈출하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자신의

54) <偶吟>, 『梅溪先生文集』, 18면.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고,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 시인은 온통 알지 못할 불만감으로 쌓여 있고, 이러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의 형태로 표출된다. 후반부의 ‘일찍 알았으면(早知)’하는 표현은 그 동안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듯 하면서도 감정의 바닥에 질게 깔린 후회를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처음부터 시인의 격앙된 감정을 나타내어 시의 의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록 천명이라는 명분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자신이 지닌 후회와 자책의 심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인 자신만의 응어리로 남는다.

술한 사연을 뒤로하고 梅溪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의 귀향은 현실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면과 부패한 사회와의 결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만을 고집한 것은 현실 적응에 실패한 것이고, 이러한 면은 후회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패한 사회에 대한 결별은 자신의 수신 의지를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부정한 과거장에서의 합격은 꿈과 같은 것이며,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사회와의 타협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포근한 고향의 모습은 변함없지만, 자신에 대한 자괴감, 과거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후회가 그를 짓누른다. 하지만, 과거에서의 득과 失은 모두 천명에 맡기겠다는 신념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을 귀의하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과거 낙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가졌던 비분함, 자괴감, 후회의 정서는 조금씩 자기만족과 현실초탈의 의지로 변해간다.

## 2. 天命 認識과 自然 歸依

과거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는 엄청난 변화를 강요받는다. 우선,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끄러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만족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의 歸鄉 원인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여러 차례 향시에 뽑혔으나, 省試와 廷試에 뽑히지 못한 것은 천명이다. 바다를 여덟 번 건너서는 말하기를 ‘이같이 함은 아버지 뜻을 응하여 이루려 함이나 天命이니 어찌하리오? 지금 집은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늙었으니 돌아가서 봉양하며 자식의 직분을 다함만 같지 못하다.’ 라고 했다.<sup>55)</sup>

위 글에 나타난 귀향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유는 자신의 실패가 천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 그것이다. 천명이란 하늘에서 주어진 명령 또는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첫째의 동기는 하늘과 자신과의 관계로 운명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천명은 자신이 개척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梅溪의 천명 인식은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는 梅溪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또한 과거의 실패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수양의 길을 선택하게 한다.

둘째 동기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직분을 다하기 위한 귀향이다. 과거에 낙방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효도로 봉양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귀향 원인은 과거 낙방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수동적 귀향을 천명과 효도라는 명분으로 둘러싸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귀향이 아

55)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5면.

累參解額 而其不中於省試廷試者命也 航海凡八渡 幡然曰 爲此者 應成親志 奈命何 今家貧親老 不若歸養 以盡吾子職.

니기에 그의 내면에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자리한다. 제주로 돌아온 梅溪의 시에서는 자연에 귀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내용과 그 속에 잠재된 불안감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潭中有石龍 못속에 돌용이 있어  
何似南陽臥 남양에 와룡선생 같구나.  
若遇劉豫州 만약 유비같은 덕인을 만나면  
忠功是真箇 충성공명을 참으로 펼치련만.<sup>56)</sup>

용담은 현재 제주시 서쪽에 있는 곳으로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용은 예로부터 걸출한 인물을 의미했고, 이 시에서는 과거에 낙방하여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梅溪 자신을 나타낸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세상에 쓰이지 않음이 마치 諸葛孔明 같은 영웅이 布衣로 있을 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지금 현재는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고향이기에 그의 마음 한편에 잠재되어 있는 시인의 괴로움은 후반부에서 나타난다.

후반부에서는 유비를 만나 능력을 펼친 제갈공명과 같이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그 뜻을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이미 과거를 포기하고 귀향한 상태이기에 유비와 같은 이를 만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주로 돌아왔기에 자연을 즐기면서도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괴로웠던 지난 날을 잊고자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 시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리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불만으로 시

56) <臥龍潭>, 『梅溪先生文集』, 2면.

인은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고향에서의 방황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면에서는 이전의 시와 동일하지만, 그래도 격렬한 감정이 앞섰던 <自嘲>와 같은 시에 비하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느끼게 한다. 또한 몇 줄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표현의 완곡함으로 시인의 편안해진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溪南白屋數重茅 시내 남쪽에 옹기종기 시골 초가집  
 城外青山十里郊 성문 밖엔 푸른 산까지 십리 들판.  
 酒席風生新臘味 술자리 바람이 이니 납주 맛이 새롭고  
 梅窓春到去年梢 창가 매화 묵은 가지 끝엔 봄빛이 닿았네.  
 志如良驥將登路 뜻은 천리마가 길을 떠나가는 듯한데  
 身似幽禽每擇巢 몸은 그윽한 새가 보금자리 고르듯 하네.  
 獨坐看書多歲月 홀로 앉아 책 읽으며 많은 세월 보냈으나  
 出門還受世人嘲 문을 나서면 오히려 세상 조롱 받는구나.<sup>57)</sup>

전반부에서는 시인의 눈에 보여진 경치를 가식이나 꾸밈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내 남쪽에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초가집 그 집안에 담긴 정겨운 풍경들, 다시 눈을 돌려 먼 산을 보면 그 푸른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다정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변 경치와 풍물에 대한 작가의 애착과 그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시어에 있어 ‘초가집(白屋)’과 ‘푸른 산(青山)’은 편안하고 아늑한 고향의 품을 상상하게 한다. 고향의 따스함과 조금씩 찾아드는 봄기운, 매화가 피어 있는 술자리, 이 모두 즐거움을 더해주는 매개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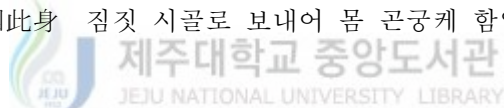
이러한 흥겨움은 경련에서 ‘뜻(志)’과 ‘몸(身)’으로 나뉘어지면서 미묘한 갈등을 느끼게 한다. 술이 시인을 즐겁고 여유있게 할 것도 같지만, 그러지 못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다. 뜻은 너른 광야를 달리는 장수와 같지만, 현실의 몸은 새가 보금자리를 고르듯이 자기 주위를

57) <感興>, 『梅溪先生文集』, 33면.

빙빙 돌 뿐이다. 천리마를 타고 길을 떠나는 심사에 비해서 무척이나 뜻이 좁고 초라해졌다. 하지만, 좁고 초라해졌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포기할 수 없기에 마지막 연에서는 ‘獨坐看書’로 이어진다.

‘獨’이란 시어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감정이 응집되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 책을 보며 여러 세월 지낸 뒤, 다시 세상에 나섰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과거 낙방으로 인해 초라하고 자신 없는 모습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끄러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으로 여기고, 시인이 먼저 세상과의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莫歎客糧絕海濱 나그네 바닷가에서 식량 떨어진 것 한탄 말지니  
 聖人猶且厄於陳 옛적 공자도 진나라에서 곤욕 치렀었네.  
 天將降任先增益 하늘이 큰 일 맡기려면 먼저 괴로움 더하나니  
 故遺窮村困此身 짐짓 시골로 보내어 몸 곤궁케 함일러라.<sup>58)</sup>



전반부에서는 공자와 같은 성인도 세상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나라에서 곤욕을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으로 들어간 趙生을 위로하고 있다.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한 공자,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간 강진의 한 선비, 그리고 이를 위로하며 시를 짓는 작자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서로 어딘지 모르는 공통된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지금 현재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고통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현실의 고통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은 과거 낙방의 시련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강한 의지이다. 또한,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강진의 어떤 선비를 위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리가 되었고, 남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여유까지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것은 이제 자신의 시련을 기회로, 전환하려

58) <聞康津趙生入山村贈詩慰之>, 『梅溪先生文集』, 23면.

는 시인의 의지이며 동시에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위 시는 자신이 세상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옛 성인이 고난을 당한 모습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회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낙방한 시인의 모습에서 보면, 현실에서의 어려움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천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나가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와 애착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애착과 의지가 있기에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현실에 대한 격앙된 감정과 불만보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이겨나가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경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轉句는 맹자의 구절<sup>59)</sup>을 인용하여 자신의 신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短筇鳴下海城頭 짧은 지팡이 울리며 바닷가로 내려가서  
一片輕槎十里洲 작은 뗏목 가벼이 십리 물가땅을 찾아갔네.  
春靜閑雲歸遠岫 봄은 고요해 한가로운 구름 먼 산골로 돌아가고  
夜深明月渡中流 밤 깊어 밝은 달은 흐르는 물 건너가네.  
鷗疑醉客潛窺笠 갈매기는 취객 못 미더워 샷갓 속을 엿보고  
魚怯歌童暗避釣 고기들은 노래하는 아이 겁내어 낚시 피해 가네.  
搖櫓歸來潮欲落 노 저어 돌아오는데 물결은 잔잔히 떠나려 하니  
更隨餘興上高樓 다시 남은 흥으로 높은 누각에 오르네.<sup>60)</sup>

위 시는 자연에 귀의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배를 타고 남당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배를 타고 물로 나가는 것은 삶의 현장인 육지에서의 이탈이며 심적 자유를 바라는 행동이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봄을 맞아 벗들과 함께 노니는 시인의 마음은 너그럽고 포

59) 「告子章句下」, 『孟子』 故天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60) <暮春旣望與朴三平泛槎遊南唐>, 『梅溪先生文集』, 36면.

근해진다. ‘한가로운 구름(閒雲)’과 ‘밝은 달(明月)’은 시인의 풍류를 돋구어 준다. ‘靜’과 ‘深’은 자연에서 느끼는 시인의 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짧은 지팡이(短筇)’는 봄 경치의 가볍고도 경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시인의 평화로운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경련에서 갈매기는 술 취한 취객을 못 믿고, 고기들 역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피해 다니기에 바쁘다. 이런 표현은 그가 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을 찾았고, 자연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같이 하고자 하나,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다시 현실로의 귀환을 노래한다. 하지만, 현실을 있기 위해 찾았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될 듯하면서도 대립 양상을 지녔던 頸聯과는 다른 모습이다. 자신의 고민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자연을 찾았지만 언제나 결론은 현실에 대한 치열한 삶의 모습을 요구했던 것이다. 현실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도 즐거울 수 없고, 오히려 자연과의 괴리를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시 그를 현실로 향하게 했고, 현실에서의 돌파구 모색은 그에게 ‘남은 흥겨움(餘興)’으로 다가선다. 흥겨움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다른 현실을 대하는 시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련에서의 부조화로 마지막 연의 興은 자연과 일치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관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寂寞村齋夜 촌집이라 적막한 밤에  
 懸燈靜據梧 오동나무에 고요히 등불 걸었네.  
 山高秋色晚 산은 우뚝하고 가을빛도 깊었는데  
 天闊月輪孤 하늘 넓고 달은 외로이 떴구나.  
 學業希聖賢 배움은 성현을 닮고자 하니  
 功名有丈夫 공명은 장부에게 주어지는 것.  
 徘徊聽雁響 거닐며 기러기 소리 듣노라니  
 清興滿江湖 세상엔 맑은 흥취만 가득하구나.<sup>61)</sup>



전반부에서는 적막하면서도 고요한 밤의 경치를 노래한다. 쓸쓸한 가을 적막한 밤에 시인은 홀로 자신이 지나온 역정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이미 버렸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뇌리를 스쳐간다. 이러한 생각은 등불 켜는 행위를 시작으로 전개된다. 등불은 밤의 시작이며, 밤은 시인을 여러 가지 생각에 빠뜨린다. 깊어가는 가을, 구름 한 점 없는 밤에 떠 있는 보름달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아, 때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대자연의 모습이며 꿈을 이루지 못한 시인과 은근한 비교대상이 된다. 처음 귀향을 결심했을 때의 격한 감정이 많이 정리되었지만 頸聯에서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그의 감정이 나타난다.

頸聯에서 ‘배움은 성현을 닮고자 함이고 공명은 장부에게나 주어지는 것(學業希聖賢 功名有丈夫)’라는 구절에서는 과거의 得失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과거 낙방으로 계속적으로 괴로웠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은 위와는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자신이 공부하는 목적을 소리 높여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감춰진 수많은 고민과 괴로움을 애써 감추려 하는 모습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들지만, 삶에 대한 의지는 너무도 확고한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자연물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고, 이에 닮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로 이제 더 이상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외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자연 본연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력과 의지를 불어넣고, 세상의 맑은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의 흥은 자신의 고민을 잊기 위해 만들어 낸 인위적인 성격이 강해서, 자연일치와는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위 시에서는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과는 괴리된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에, 점차 내면의 갈등을 극복

---

61) <秋夜偶吟>, 『梅溪先生文集』, 4면.

해 나가는 梅溪의 모습도 함께 읽을 수 있다.

歲暮泉齋蠟燭明 세밑에 삼천재에 촛불 밝혀놓고  
與君樽酒感詩情 벗과 동이술 대하니 시정이 느껴지네.  
亭頭白雪孤松節 정자 위 흰 눈에 소나무 절개가 외롭고  
城上黃昏盡角聲 성 위 노을에 나팔 소리 다했구나.  
半世堪爲如意舞 반생을 내 뜻 따라 춤출 수 있었으니  
丈夫休作不平鳴 장부라면 불평소리 내지도 말아야지.  
眞衿欲論幽閑處 진심으로 유한한 곳 말하려니  
光霽橋邊流水清 광제교 옆을 흐르는 물소리 맑아라.<sup>62)</sup>

이 시 역시 많은 갈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그의 의식 변화를 읽을 수 있다. <秋夜偶吟>이 혼자 있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위의 시에서는 벗인 申錫九와 함께 시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혼자일 때의 시보다는 조금 밝은 면이 보이지만, 그 대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부의 분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詩想을 일으키고 있다. 三泉齋는 삼천서당을 말하는 것이다. 삼천서당은 영조 때 金(政)이 개설한 이래 제주의 여러 문사를 키운 곳이다.<sup>63)</sup> 집이 아닌 서당에서 묵은 해를 정리하는 시인의 심정은 술로 인해 어두운 공간을 다시 밝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다.

頷聯에서 시선은 문득 밖에 서 있는 소나무로 이동한다. 소나무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歲寒三友의 하나로, 여기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상징이다. 지금까지의 경치는 점점 사그러드는 빨나팔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이 희미해진다. 이러한 경치로

62) <夜與申大雅錫九唱酬>, 『梅溪先生文集』, 32면.

63) 金錫翼, 『破閑錄』, 『心齋集』, (濟州文化, 1990), 295면.

英廟丙辰 牧使金蘆峯(政) 設三泉書堂于東城內 揀齋生十五人 置廩料以教 凡民俊秀 南方右文之會 可謂盛矣.

다소 정리된 시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절제된 경치 속에서 조금씩 느껴지던 詩情은 頸聯에서 폭발할 것 같은 감정으로 휘몰아친다. ‘평생을 내 뜻에 따라 춤을 추었다(半世堪爲如意舞)’는 것은 현재까지의 자신의 모든 행동이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한 적극적이고 후회없는 삶을 뜻하고, 이는 곧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부라면 불평소리 내지 말아야 한다(丈夫休作不平鳴)’는 구절에서는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즐거워 보이지만, 어딘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허전함은 시인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으로 과거 실패가 주된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연에서 불만족은 흐르는 물과 같이 멀어지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그윽한 한정으로 자신의 평온을 되찾는다. 이제 밤이 되어 소나무는 아예 안 보일지 모르지만,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이제 그의 또 다른 이상향으로 자리한다. 자연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는 결국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을 통한 평온함 외에도 이 시에서는 자신의 공간에 대해 만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적 공간이 삼천재 서원임을 감안할 때, 시련 극복은 독서와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의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3. 修身 意志와 現實 超脫

동양에서 자연은 항상 옳고 바른 道를 간직한 존재로 생각했고, 자연을 본받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성품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했고, 이러한 느낌은 즐거움으로 연결된다. 귀향 초기에 몸은 비록 자연 속에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자연의 영원함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만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로 그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간다.

一咏亭이란 영주의 많은 선비들이 시를 읊는 첫째 정자이다. 하늘과 땅으로 터를 삼고, 산과 물로 기둥과 정자를 삼고, 바람과 달로 문과 들창을 삼고, 안개와 노을로 담장을 삼고, 꽃과 나무로 뜰과 계단을 삼고, 네 계절을 맞고 보내며, 천고의 시간으로 손님과 주인을 삼으니, 눈과 비를 맞아도 퇴락하지 않고, 많은 세월을 흘렸으나 썩지 않는다. 오르려 해도 사다리가 없고, 우러르니 더욱 높아 오직 시 읊는 정취를 가진 이라야 이곳에 올라 놀리로다.<sup>64)</sup>

위 글은 梅溪의 「一咏亭記」이다. 記는 일의 유래를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을 本意로 한다. 「一咏亭記」에서는 자연을 동경하고 외경하는 동양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동양에서 자연은 풍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자연을 道의 구현체로 보며 단순히 자연의 형상만을 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정신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을 즐기는 자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영정에서는 不惑의 나이로 제한하여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함이 지나치면 흥이 흠어짐에 치닫고, 술잔이 도를 넘으면 거짓된 말에 흐르게 된다고, 그러므로 나이 不惑에 이르지 못한 이는 참여치 못하게 하는 것이오’<sup>65)</sup> 라고 하여 풍류를 즐기면서도 방탕함을 막으려는 유교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풍류를 위한 풍류가 된다면 그것은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는 放逸과 통한다. 즉, 자연을 그저 산과 물이라는 존재로 읽는 것이 아니라, 道의 구현체로 생각하고 자연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철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64) 「一咏亭記」, 『梅溪先生文集』, 118면.

一咏亭者 瀛洲多士吟咏之第一亭也 以天地爲基址 以山水爲楹榭 以風月爲窓牖 以煙霞爲墻壁 以花卉爲庭砌 以四時爲送迎 以千古爲賓主 經雨雪而不頽 閱歲月而不朽 登者無梯 仰者彌高 惟有一咏之志趣者 可以登於斯 遊於斯乎.

65) 「一咏亭記」, 『梅溪先生文集』, 118면.

客有問曰 今用耆英會故事 不許年少者 何也 笑而麾之曰 過乎咏 則馳於放浪 濫乎觴 則流於虛誕 故年未滿不惑者 所以不得預於此也.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방탕하게 흐르는 점을 경계하고, 자신의 심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본연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고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 항상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강조되었다. 梅溪의 경우도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학문에 대한 관심, 즉 독서에서 찾는다. 독서는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雪後園林日影疎 눈 내린 과원엔 햇빛 얽은데  
寒山靑到數椽廬 한라산 푸른 빛이 초가 서까래에 닿누나.  
胸中自是無凡想 마음엔 세속 욕심 없으리니  
坐對晴窓百本書 창가에서 백 권 책을 대하노라.<sup>66)</sup>

귀향한 후에 梅溪는 자연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는 자연에 몰입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것이다. 그는 천명과 효도라는 명분으로 제주로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귀향 초기에는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점차 자연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고, 자아 실현의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어 간다.

전반부에서는 눈이 내린 자연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눈이 온 뒤에 검은 먹구름 사이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 햇빛은 시련을 겪은 그에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욕심으로 들이닥쳤던 눈보라도 이제 어느덧 조금씩 개어 햇별이 비쳤고, 이러한 마음은 푸른 한라산이 자신의 집에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푸른 빛은 작자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잿빛 구름이 걷히고 보니 이제 자신에게도 푸르른 희망과 같은 것이 생겼다는 일종의 생명력인 것이다. 시인에게 다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삶의 개척이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된다.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희망은 凡想이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

66) <偶吟>, 『梅溪先生文集』, 9면.

다. 범상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위 시의 경우 자신이 얽매여 온 헛된 욕심과 같은 것이다. 벼슬길에 대한 욕심과 미련들이 없어지면 서 눈이 온 뒤에 깨끗한 풍경처럼 시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 동화된다. 모든 과정을 거친 그의 마음은 고요한 靜의 상태를 되찾게 된다. 이러한 고요함은 마지막 구에서 책을 읽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가 읽는 책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구속과 속박의 책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지금까지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舍東春水舍南畬 집 동쪽엔 연못 남쪽엔 따비밭  
 日日生涯耕且漁 나날의 삶은 그저 밭 갈고 고기 잡을 뿐.  
 長保二親樂無極 부모 모셔 오래 살아 즐거움 끝없으니  
 更隨餘力讀詩書 남은 힘 모아 두고 시경, 서경을 읽노라.<sup>67)</sup>

위 시에서도 독서를 통한 극복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밭 갈고, 고기 잡고, 부모를 모시고, 남은 힘이 있을 때에 책을 읽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어쩌면 너무도 평범한 것에 너무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느낌마저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布衣 신분인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전반부에서는 시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 시에서 농사와 어로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자연에서 즐기는 삶을 나타낸다. 그의 삶은 자연을 단순한 소재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관념 속의 자연이 아닌 실제 자연을 인식한 것이다. 자연을 생활하는 곳으로 생각한 것은 즐거움과 한적함을 관념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얻었음을 뜻한다. 즉, 그의 자연은 생활공간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후반부에서 역시 부모를 모시는 실제 즐거움이 나타나고 시경과 서경을 읽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67) <樂志>, 『梅溪先生文集』, 8면.

그가 이렇게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수양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에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이기고 수양을 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책을 읽는 행위로 나타난다.

위 시는 칠언 절구의 짧은 형식이지만, 실제 삶에 녹아 있는 자연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실마리가 독서라는 점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주어진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난관을 이겨가려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다.

驟雨超過薄霧收	소나기 얼른 지나고 얇은 안개 걷히니
漸看天氣自清秋	잠깐 사이 천기는 저절로 맑은 가을일세.
蟬聲曳去斜陽樹	매미소리 석양빛 비추는 나무로 사라지고
燕語辭歸近水樓	제비는 물가의 누각에서 돌아가려 인사 전하네.
身遊天地三盃酒	몸은 세상에 나와 석잔 술을 즐기지만
夢在江湖一葉舟	생각은 자연 속에 작은 배에 노니노라.
遙想蓮齋讀書伴	아득히 글방에서 함께 글 읽던 벗들 그리워
朗吟濯足下滄洲	낭랑히 읊조리며 발 씻으려 개울가로 내려가네. <sup>68)</sup>

위 시에서는 시인이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초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전반부에서는 완전한 가을 풍경을 그리고 있다. 매미와 제비는 가을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존재이다. 가을이 되어 하나씩 변하는 모습에서 시인은 변화하는 자연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후덥지근한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자연의 변화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차츰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 가졌던 과거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지고,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유구함에 비교하면서 감상에 젖거나 슬퍼하는 마음 역시

68) <早秋>, 『梅溪先生文集』, 45면.

찾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두어지는 얽은 안개(薄霧收)’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뜻하고 점차 ‘맑아지는 가을(淸秋)’에서 이제 그도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자연과 함께 보조를 맞춰간다. 이러한 보조는 후반부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몸(身)’과 ‘꿈(夢)’의 대구에서는 무한한 자연 앞에서 서 있는 유한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느껴왔던 거리보다 상당히 가까워져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신념과 의지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마지막 연에서 보이는 ‘讀書’와 ‘濯足’의 시어에서 찾을 수 있다. 무한한 자연 앞에서 초라해지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연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과 신념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직관하기 때문이다. 독서에 의한 의미부여는 선비로서 당연한 행동이지만, 과거 낙방이라는 시련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朗吟’에서는 단지 표면적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濯足’이라는 시어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신념과 절속의 의지 그리고, 불만의 현실을 초탈하려는 그의 심사와 여유를 느끼게 한다. 다음 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白鷺俄驚濯足聲 발씻는 소리에 백로는 놀라 나는데  
 滿天苦熱一身淸 세상은 더위에 괴로워도 이 몸은 시원하네.  
 冠三童五咏歸路 어른 아이 함께 노래하며 돌아오는 길에  
 萬里滄溟潮欲生 아득한 바다에 물살이 밀려드네.<sup>69)</sup>

발을 씻는다는 제목의 위 시에는 그의 절속의지와 현실에 대한 초탈의지가 잘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 유월조에는

69) <濯足>, 『梅溪先生文集』, 11면.



선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濯足하며 피서를 즐겼다는 말이 있다.<sup>70)</sup> 즉, 탁족은 일반화된 그 당시의 풍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탁족 놀이는 단순한 피서의 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선비들에 있어서는 피서의 차원을 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선비들이 특별히 ‘濯足之遊’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는 중국 고전인 『楚辭』, 『漁父詞』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漁父詞』에서 어부와 굴원 사이의 문답을 서술한 마지막 부분에, “어부가 빙그레 웃으며 노를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을 것이다’ 라 하면서 사라지니 다시 더불어 말을 하지 않았다.”<sup>71)</sup>는 구절이 있다. 이후로 이 노래 중에 나오는 ‘濯足’과 ‘濯纓’에는 부패한 세계와의 단절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起句에서 발씻는 행위는 부패한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시인은 발을 씻으면서 부패한 세상과의 결별을 노래하지만, 이러한 맘도 몰라주고 백로는 놀라고 있다. 놀라는 백로는 이러한 세계를 처음 느낀 시인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의 마음이 부패한 현실을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뛰어넘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세상이 더위에 괴로워도 이 몸은 시원하다는 초월과 소요의 심사를 느끼게 된다. 이런 그의 감정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구는 『論語』 『先進』 구절<sup>72)</sup>의 脫態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벗하여 즐거움을 뜻한다. 이렇게 자연과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너그럽고,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구의 ‘멀리서 물결이 밀려든다’라고 한 것은 어디선지 모를 희망과 즐거움이 물밀듯이 생겨나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자부심, 자연을 관조하면서 합일하려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70) 허균,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대한교과서, 1998) 97쪽 재인용.

71) 『漁父詞』, 『楚辭』. 漁夫莞爾而笑 鼓枻而去 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遂去不復與言.

72) 『先進篇』, 『論語』.

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八人 浴乎沂 風乎舞雩 咏而歸.

去年白雪今年白 지난해 희었던 눈 올해도 희니,  
 我白三年彼白同 내 머리 세기 삼 년에 눈빛과 같아졌네.  
 彼白雖銷我猶白 저 눈은 녹아도 내 머리는 여전히 희니,  
 銷天銷地到無窮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희겠네.<sup>73)</sup>

위 시는 눈이라는 자연물과 자신의 하얀 머리를 비교하면서 시인의 고매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눈은 겨울을 대표하는 자연물이고 자연이라는 변함없는 존재에 대한 그의 동경은 자연과의 공통 분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동경은 결국 자신의 하얀 머리와 눈의 빛깔이 같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承句에서의 ‘我白三年’은 자신의 머리가 실제로 세어진 햇수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깨끗해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이 자연을 갈망하며 이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은 후반부에서는 불변적인 자연과 가변적인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그 위치가 뒤바뀌어 나타난다. 이제 눈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가변적인 존재로 자신의 흰 빛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더 나아가 ‘無窮’의 경지에 이른다. ‘無窮’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인간이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시는 객관적으로 느끼는 자연과 자신의 흰 머리 빛에서 공통점을 착안하여 자신의 수신의를 詩化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날씨의 변화에 모습을 달리하는 눈을 포착하고는 자신의 하얀 빛 즉, 그의 의지와 신념은 절대 변할 수 없음을 극대화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영물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73) <感雪>, 『梅溪先生文集』, 24면.

雪裏秀孤松 눈 속 깨끗한 소나무  
 凜然君子容 늠름한 군자의 용모로다.  
 回看衆芳質 못 꽃들 향기로운 자태 돌아보니  
 笑爾不知冬 겨울도 모르는 그들 우습기만 하네.<sup>74)</sup>

古溪殘月月明時 골짜기 남은 눈에 밝은 달이 비칠 때  
 開到寒梅第一枝 매화 가는 가지에 꽃마저 피어났네.  
 莫道陰崖春色晚 그늘진 곳에 봄빛 늦는다는 말 말지니  
 百花頭上詔神奇 모든 꽃에 앞서서 피어神奇함을 자랑하네.<sup>75)</sup>

위 시는 각각 소나무와 매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소나무와 매화는 대나무와 함께 歲寒三友로 일컬어지고 있다. 두 시 모두 전반부에서는 소나무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고 후반부에서는 시인의 느끼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눈 속에도 깨끗하게 푸른 빛을 갖는 소나무, 가지 한 끝에 꽃을 피우는 매화에서 누구나 군자의 용모를 느끼고 깨끗한 감정을 갖는다.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느끼는 감정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고매한 인격을 ‘겨울도 모르는 그들 우습기만 하네(笑爾不知冬)’이나, ‘모든 꽃에 앞서서 피어神奇함을 자랑하네(百花頭上詔神奇)’의 구절로 나타내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신념과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는 행동이 따랐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겨울을 모르는 못 꽃’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웃음은 自嘲나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초탈과 관조를 의미한다. 또한 ‘그늘진 곳에 봄빛 늦는다는 말 말지니(莫道陰崖春色晚)’의 구절에서는 시인이 겪었던 어두운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봄빛으로 만들어 가는 시인의 의지와 신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生於太古稟天三 먼 옛적에 태어나 기품을 하늘에서 받아

74) <孤松>, 『梅溪先生文集』, 1면.

75) <咏梅>, 『梅溪先生文集』, 11면.

盛化曾添樛木南 일찍 한창 때는 늘어진 가지 남으로 뻗었었지.  
 壽似彭仙多歲月 나이는 팽조만큼 오랜 세월 지냈고  
 形亦屈子放江潭 모습은 굴원이 강가를 헤매일 때 닮았네.  
 盤根有力擎危石 서린 뿌리는 힘이 넘쳐 큰 바위 움켜쥐었고  
 枵腹無心闕劫藍 주린 배로도 욕심 없이 푸르름 뽑아 보여주네.  
 願與世臣同守國 세신들과 함께 나라 지키길 원했지만  
 千年窮巷老猶甘 굶주린 거리에서 늙어감이 오히려 달기만 하네.<sup>76)</sup>

이 시는 禹龍의 <古木詩><sup>77)</sup>에 화답하여 쓴 시이다. 이 시에서 고목은 자연의 대표성을 가지며, 하늘에서 받은 기쁨은 고목의 맑고 깨끗한 본성을 나타내고, ‘太古’라는 시어는 고목의 맑고 깨끗함을 배가시킨다. ‘樛木’은 시경의 편명으로 후비의 은덕이 아랫사람에게 미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늘이 내려준 福祿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자연은 오랜 세월을 거쳐도 자기의 본연의 성품을 잊지 않기에 하늘의 준 福祿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본연의 모습에 대한 동경은 시인도 마찬가지이다.

頷聯에서는 현재 고목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그려내고 있다. 오랜 세월을 제자리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어느덧 나이는 팽조와 같은 장수를 누리지만, 아직도 굴원이 헤매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고목의 모습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읽기 때문이다. 뒤돌아 보면, 시인 또한 고목처럼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 왔건만, 지금도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예전처럼 지속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신념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황은 그에게 시간낭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頸聯에서 ‘뿌리가 바위에 움켜쥔다.’ 고하는 것은 이제 시인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감을 갖는 기회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지금은 시골 한 구석에 위치해 있지만, 그 뜻만은 땅 속 깊은 바위를 움켜쥐고 있어서 절대 움직이지

76) <和禹龍古木詩>, 『梅溪先生文集』, 62면.

77) 『梅溪先生文集』, 62면.

않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삶의 의지를 말한다. 이렇게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비록 배고프고 거친 삶이라 할지라도 그 푸르름을 속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고목의 푸르름은 곧 시인의 고난 극복을 통해 얻은 생명력이며, 역동적 삶과 같은 것이다. ‘주린배(枵腹)’에서는 청렴하고 검소한 그의 성품과 지금까지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뜻하고, 이런 고난이 있기에 그의 의지는 더욱 가치있고 고매한 형상으로 다가온다. 비록 세상에는 등용되어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같이 부정한 세상에 대해 소리 높여 자신의 처지가 부당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 기회와 시간을 청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은 깨끗하고 맑은 정신과 고매한 인품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모습과 정신들은 마지막 미련에서 ‘窮’과 ‘甘’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비록 그가 이렇다할 벼슬은 못하여 궁하다면 궁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다시 그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에 ‘甘’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궁핍함 속에서도 달콤한 삶의 향기를 인식함은 바로 安貧樂道の 삶인 것이다.

縱使丈夫鳴欲雄 가령 대장부라도 영웅의 소리 울리려 해도  
 羊腸到處路難通 구불구불 굽은 길 곳곳에 통하기가 어렵다네.  
 我隨春水忘機鷺 나는 봄 물가에서 백로 따라 놀러니  
 君學秋天避弋鴻 그대는 가을 하늘에 주살 피한 기러기나 닭구려.  
 月待良宵方露白 달은 좋은 밤을 기다려야 이슬 환히 밝혀주고  
 花逢好節必開紅 꽃은 좋은 계절 만나야만 고운 모습 내보이지.  
 始知人事皆先定 비로소 알겠노라. 사람일 다 먼저 정해진 것을  
 莫向名場論達窮 이름난 곳에서 영달과 곤궁을 다투지 말지니.<sup>78)</sup>

이 시는 지금까지의 시련을 극복하려는 초탈 의지가 나타난다. 首聯에서 대장부는 양장처럼 굽은 곳, 즉 벼슬길로 나아가려 하나 자신의 의지대

78) <和姜進士琪奭 字公圭> (其二), 『梅溪先生文集』, 55면.

로 안됨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정 찾아야 할 일이 벼슬길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한가로움임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얼마만큼 현실에 대해 한계상황을 느꼈는지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頷聯에서 벼슬길에 미련을 버린 시인의 모습은 ‘忘機驚’로 그려지고 있다. 機微를 잊어버린 기러기는 모든 것을 초탈한 그의 마음을 상징한다.

또한 강진사의 모습은 주살을 피한 큰 기러기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물가에서 백로를 따라 노는 시인과 함께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할 수 있는 벗이 된다. 자연의 평온함과 조화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의 마음이 그만큼 너그러운 것이고, 강진사는 자신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또 다른 자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자연이 항상 아름답고 조화롭게 생각되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頸聯에서는 달과 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지금 시대가 자신의 때가 아님을 깨닫는 모습이다. 달이 밤이 되어야만 진정 아름다우며, 꽃 역시 자신의 시절이 되어야 피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사랑스럽게 주시하게 된다. 누가 자신을 인정해주건 말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모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마지막 연에서는 인간의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지고 영달함과 곤궁함은 애써 다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운명론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의 운명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시인의 의지가 더 강하게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의지에 주목하여 운명을 바라보면, 운명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 정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기에 시인은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지키면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현재 모습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신념이 있기에 영달과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추구이며, 이것은 바로 자연 귀의이며 동시에 자기 수신에 대한 강한 의지로 나타난다.

晚對浮雲世廬空 늦어서야 뜬구름에 세상 근심 비우니  
 山光水色屋西東 사는 집 동쪽 서쪽에 산과 물을 갖추었네.  
 一生無事如今日 한평생 일 한가함 오늘과 같다면  
 三夏有詩似古風 여름날에도 시 지으며 옛 풍취 본받겠네.  
 竹影輕搖琴榻翠 대 그림자 가벼운 흔들림 거문고 자리 푸르고  
 榴花難點硯池紅 석류꽃 여기저기 흘날려 베틀 못이 붉구나.  
 人間得失何關我 인간 세상 얻고 잃음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리  
 還笑當年塞上翁 돌이켜 변방 늙은이처럼 웃음이나 짓노라.<sup>79)</sup>

위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초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首聯에서 ‘뜬구름(浮雲)’에 대하여 세속의 근심거리는 비우고 집의 동서로 산과 물이 둘러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에게 의롭지 못한 부귀 영화는 이제 뜬구름과 같은 것이 되었다. 자신의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헛된 꿈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집의 동서에 자연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한 몇몇한 삶을 나타낸다. 頷聯에서 ‘한가함(無事)’은 그가 세상에 대한 근심을 털어 버리고 자연을 본받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가함과 자연은 곧바로 詩情으로 이어진다. 시는 이제 자연과 자신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古風’을 닮아서 자신의 깨끗한 심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頸聯의 ‘대나무(竹)’, ‘거문고(琴)’, ‘베틀(硯)’에서는 고향을 닮으려는 그의 의지가 나타나고, 이 모두는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물건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뜬구름을 멀리하기에 가까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4연에서는 지금의 득이 나중에는 失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失이 다음에 득이 될 수 있다는 塞翁之馬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현실에서의 득실을 초탈한 모습이 나타난다. 마지막 구의 ‘웃음(笑)’은 냉소와 비웃음이 아

79) <偶吟>, 『梅溪先生文集』, 48면.

닌 자신의 현재 모습을 냉철하게 살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있다.

寫我桃符迎早春    복숭아 부적 그려 이른봄 맞이하니  
竹臯晴景喚遊人    대 언덕은 활짝 개어 나그네를 부르네.  
風情不向塵間沒    풍치는 세속 먼지 묻히지 않으려는 듯  
物態還從雪後新    사물의 자태는 눈 온 뒤 도리어 새로워 졌네.  
於水於山隨地樂    물에서든 산에서든 곳곳마다 즐거우니  
宜詩宜酒任天真    시이거나 술이거나 본래 천성에 맡겨주네.  
多情鷗鷺相知面    다정한 갈매기 백로 다 얼굴 아는지  
猶守先生舊釣濱    오히려 선생의 옛 낚시터를 지키는 듯 싶구려.<sup>80)</sup>

위 시는 하늘이 준 자신의 천성을 지키면서 자연과 합일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입춘일에 보이는 죽도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절기상 입춘이지만 눈까지 내렸고 그 경치의 깨끗함은 먼지 날리는 塵世와는 격리된 곳이다. 그곳의 자연 경물의 깨끗함은 작가가 자연을 보고 느낀 의경으로 그의 마음 역시 텅텅이 맑고 깨끗한 상태이다. 자연을 보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지키려 하기에 그가 인식하는 자연 역시 맑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풍치가 세속 먼지에 묻히지 않으려 한다.(風情不向塵間沒)’는 구절은 지금까지 비록 시인 자신이 더러운 먼지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굳은 의지와 신념을 지켰음을 알게 한다. 이런 와중에 찾은 자연이기에 더욱더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끗함은 후반부에서 즐겁고도 관조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

물과 산이 있다면 ‘어느 곳이나 즐겁다(隨地樂)’함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고, 시와 술은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자연과 합일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억지로 그에 따라가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성에 맡김(任天真)’으로 해서 더욱 더 자연과 친밀할 수 있게 한다. ‘天真’은 하늘이 준 진실됨, 자연스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자연적

80) <立春日與朴三平遊竹島>, 『梅溪先生文集』, 36면.



인 심성, 즉 本然之性을 말한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자연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인간이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고 본연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자연과 일치할 수 있는 마음이다.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무정히 날아가는 갈매기와 백로이지만多情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연의 여러 풍경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졌기에 이제 시인 자신은 또 다른 자연의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선생의 옛 낚시터를 지키는 듯 싶구려(猶守先生舊釣濱)’의 구절에서는 이제 시인이 완전히 자연에 녹아들어, 오히려 자연물인 갈매기가 시인과 함께 하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시는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수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시인은 자연의 풍치를 보면서 성품을 부러워하거나 동경만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갈매기도 시인을 속세의 더러운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연 지성을 간직한 자연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과 함께 하는 시인의 마음이며, 독자에게는 미묘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墨石橋頭小閣東    묵석교 동쪽 머리에 작은 누각 있나니  
 平江如練遠山空    잔잔한 강물 비단 같고 먼 산은 말끔하네.  
 烟深柳幕鶯啼綠    안개 짙은 버들장막엔 피꼬리 푸르게 울고  
 風靜花簾燕蹴紅    바람 없는 꽃 무늬 발엔 제비가 꽃을 차누나.  
 詩畫閑居皆道士    한가히 시 짓고 그림 그리니 다 도를 깨친 선비이니  
 魚樵半雜幾仙翁    함께 섞여 고기 잡고 나무하는 이 몇이 신선인가?  
 大痴小點何須較    큰 어리석음과 작은 교활을 어이 꼭 가름하리  
 一任春機浩蕩中    봄 기미의 호탕함에 그대로 맡겨 두노라.<sup>81)</sup>

위 시에서도 역시 자연과 하나가 된 시인의 모습이 보인다. 전반부에서

81) <閑居>, 『梅溪先生文集』, 51면.

는 시인이 느끼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는데, 평온하면서도 각자의 모습을 지키는 자연을 통해 작가의 마음이 한결 정화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잔잔한 강(平江)’, ‘깊은 안개(烟深)’은 바람이 없을 때 보이는 경치이다. 바람이 없어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잔잔한 강속에서 깊은 물의 쉬지 않는 흐름, 깊은 안개 속에서 들리는 찹쌀떡의 울음소리, 봄이 되어 다시 생명을 얻은 동식물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포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頤聯에서의 시와 그림은 이러한 경치를 단순히 바라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 일치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와 그림을 하나의 재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치감은 전혀 가치가 없고, 일치감을 느낄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梅溪는 시와 그림을 통하여 자연의 한가함을 느꼈고, 이러한 한가함은 ‘皆道士’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한가로움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관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관조하는 것은 사물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이성적인 인식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道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를 깨닫고 행동하는 은일자로 어부와 나무꾼이 등장한다. 이들의 모습은 곧 梅溪 자신의 모습이며, 세상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이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갖는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위치한 시인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시인의 관조에서 오는 행동을 나타낸다. 어리석음이나 교활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한가함은 봄기운의 호탕함에 一任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제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道心을 느끼게 한다. 道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이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면서 천명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雲意山含雨 산을 에운 구름은 비 머금고  
波聲海得風 바다 물결소리는 바람에 실렸네.

閑來因動興 살며시 다가와 흥취 부추기니  
傾酒對書童 술잔을 기울이고 서동을 대하네.<sup>82)</sup>

위 시에서는 그의 유유자적하는 풍류를 느낄 수 있다. 귀향 후 그에게 주어졌던 시련과 고뇌는 전혀 느낄 수 없다. 구름과 비, 파도 소리와 바람은 동적인 이미지와 무거움을 줄 수 있는 시어이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의 흥취를 더하는 매개체가 된다.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閑情을 느끼게 한다. 자연에 대한 동경과 바람은 자연합일을 생각하고, 결국 시인은 자연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리하여, 전구에서는 되찾은 기쁨으로 흥취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연을 통한 흥취는 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해진다. 마지막 구에서 술을 기울이고 서동을 대하는 장면은 ‘술이 다 떨어졌으니 가서 술 좀 사오너라’ 하면서 붉은 얼굴에 미소를 띤 시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시인의 즐거움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심부름이나 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와 대비되면서, 한가한 모습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흥취를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전반부의 비교적 무거운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흥겨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연의 무거움마저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외적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隔溪晴雪小扉開 시냇가에 눈이 개어 사립문 열어 보았네  
爲許親朋乘興來 친한 벗이 흥취 더불어 왔으면 했지.  
夜深詩思清人骨 밤 깊으니 詩思가 일어 속마져 맑아지니  
獨對梅花酒一盃 홀로 매화 대하여 한 잔 술 기울이노라.<sup>83)</sup>

위 시는 눈 내리는 밤의 경치를 보면서 자신의 閑情을 노래하고 있다.

82) <寫懷>, 『梅溪先生文集』, 1면.

83) <雪夜>, 『梅溪先生文集』, 16면.

눈이 갠 날씨는 시인의 맑아진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고, 문을 여는 행동은 자기의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세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이 평온하면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수신에 대한 확신이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날씨가 점차 개어 시냇가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자연의 기운이 생동하려 할 때, 시인은 자연의 흥취를 느낀다. 風月主人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연은 즐기고 느끼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연이기에 그는 함께 할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비록 야심한 시간이지만, 사립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밤이 깊어 찾아오는 친구는 없지만 시인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즐기는 자연의 흥취는 詩思로 연결된다. 시에 대한 생각은 시인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하고, 또 다른 풍류의 세계로 그를 몰입시킨다. 즐거운 마음은 시를 지어도 멈출 수가 없다. 시를 지어도 표현 못한 마음은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혼자서 아니다. 바로 매화를 벗삼아 마시는 술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벗하면서 술 마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자연과 별개가 아니다. 자연과 함께한 덩이로 어울려 있는 시인의 푸근한 감정과 여유를 느끼게 한다.

#### 4. 瀛洲十景의 形象化

제주는 외부에서는 신선의 땅이라 하여 瀛洲를 비롯하여 耽羅, 毛羅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신선의 땅이라는 이름에 맞게 제주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산재해 있고 선현들은 이러한 경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하고, 浩然之氣를 키워나갔다.

앞 항에서도 언급했듯이 梅溪 역시 자연을 통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이러한 것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듣던 제주의 풍물과 경치에서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그가 제주 자연에 대해서

느낀 감정과 인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心齋集』의 「海上逸史」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지역과 풍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경치에 얽힌 시 약간편을 소개하고 있다. 『心齋集』에서는 漢拏山, 城山(성산일출봉), 牛島, 虎島, 天池淵, 山房(산방산), 天帝淵, 松岳山, 財巖, 都近川, 斗泉, 龍淵, 鯨窟(사라봉 지역), 毛興穴(삼성혈), 高得宗舊居, 嘉樂泉, 達觀台, 糊磨石, 判書井, 金寧窟, 白鹿潭, 方巖, 靈室, 瀛邱, 貫石, 鷹巖, 老人星, 王子墓, 東濟院泉, 大沙浦, 飛龍池, 山房德, 橘柚, 燕覆子, 馬屯 등의 제주 경치와 풍물 및 명승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吳文福은 「瀛洲十景詩小考」<sup>84)</sup>에서 자신이 확인한 지역과 이 지역에 남겨진 시문들의 작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漢拏山 : 權近, 金緻, 金尙憲, 林悌, 南九明, 李元鎮, 李慶億

白鹿潭 : 金緻, 李源祚, 李翼,

靈谷 : 金緻

城山 : 金尙憲, 林悌, 李衡祥

牛島 : 金淨, 林悌

正房淵 : 李衡祥, 金壽翼

天池淵 : 金尙憲, 李元鎮

山房山 : 金尙憲, 李元鎮

松岳山 : 金尙憲

都近川 : 李元鎮, 金尙憲

龍淵 : 林悌, 金尙憲

龍頭巖 : 朴亨秀

瀛邱 : 洪重徵, 趙觀彬, 金永綏

馬屯 : 金尙憲

橘柚 : 金聲久, 金淨, 趙貞喆, 林悌

長儿湫 : 南九明

---

84) 제주도 90호, 1991.

이상 『心齋集』에서 소개한 경치와 오문복이 수집한 곳은 조선 중기까지 제주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었고, 제주에 도래한 문인들은 이곳에서 자연과 풍류를 즐긴 시문을 많이 남겼다. 하지만, 영주십경중에 산지포는 『心齋集』에서의 경우나 위의 경우에도 빠져 있다. 이곳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품제하면서 끼어들게 된 명승지로 보인다. 위의 장소를 중심으로 瓶窩 李衡祥(숙종 壬午: 1702년 도임), 李禮延(순조 庚寅: 1830 도임), 凝窩 李源祚(헌종 辛丑: 1841 도임) 등의 문인들이 제주의 산천을 品題하기 시작한다. 제주 문인들 역시 이 곳에서 많은 시를 남겼을 듯 싶지만, 전해지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李衡祥은 숙종 壬午년인 1702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는데 漢拏彩雲, 禾北齊景, 金寧村樹, 平代渚烟, 魚燈晚帆, 牛島曙靄, 朝天春浪, 細花霜月의 八景을 품제하고 四韻詩 三首를 읊었다. 瓶窩의 팔경은 대부분 제주도 동부 지역의 경치를 주로 읊었고, 제주 전도를 망라하지는 않았다. 이는 제주를 觀風한 기간이 1년 밖에 안되어 제주 전역을 두루 살피지 못했고 미신 타과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85)</sup> 李禮延은 杵歌, 畚水 屯馬등 民物을 품제 하였지만 제주의 경치를 읊은 것은 많지 않다. 헌종 신축년에 도임한 凝窩 李源祚는 제주 자연을 주제로 품제한 시가 많은데 그에 이르러서 현재의 瀛洲十景과 거의 비슷해졌다.<sup>86)</sup>

凝窩의 영주십경시는 칠언절구 10편으로 지어졌다. 원제는 <瀛洲十景題畫屏>인데, 瀛洲賞花, 正房瀑布, 橘林霜顫, 鹿潭雪景, 城山出日, 紗峰落照,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靈室奇巖의 순서로 되어 있다.

凝窩의 영주 십경시는 이름, 차례, 시의 형식이 다르고 다른 부분은 현재의 것과 거의 같다. 제목에서 보듯이 凝窩의 영주십경시는 十幅의 屏風에 題贊한 시이다. 이 병풍은 발문도 없어 그려진 내력을 알 수 없지만, 제주도의 열 곳 경치를 그릴 정도라면 이 열 곳이 당시에 이미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인식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 제목에 있어서도 차례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름이 없고 對景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시 성격에

85) 金錫翼, 「耽羅觀風案」, 『心齋集』(濟州文化. 1990), 260면.

86) 吳文福, 「瀛洲十景詩小考」(제주도 90호, 1991).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실제로 느꼈다기보다는 병풍의 경치를 보고 시를 지어서 경치묘사 부분은 梅溪 시에 비해 간략하다. 또한 그가 본토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 경치에서 느끼는 신비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주십경의 제목과 차례는 제주 사람인 梅溪에 이르러서 다시 정해지고 전해진다.<sup>87)</sup>

梅溪가 제주의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작품화한 것은 당시 제주에 귀양온 秋史 金正喜의 만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秋史는 헌종 7년 庚子(1840)부터 헌종15년 戊申(1848)의 7년 동안 제주 대정현에 유희 안치되었다. 이 때는 그가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 유배 기간은 동국진체라는 秋史體를 완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秋史 김정희 선생이 대정에 귀양살이로 내려오니 공께서 찾아가 학업을 여쭙었다. 秋史께서 크게 권장하며 허락하였다. 좇아 배우는 이들이 많았으나, 유독 공을 대우함이 특이했다.<sup>88)</sup>

『梅溪先生文集』에서는 秋史와의 만남이 위와 같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梅溪와 秋史와의 관계는 남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秋史가 살았던 곳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 <謹題金秋史先生壽星草堂><sup>89)</sup>, 秋史 선생이 쓴 글씨를 보면서 지은 <漢瓦><sup>90)</sup>, <謹題朱夫子壽字><sup>91)</sup>에서는 秋史를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하는 그의 마음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秋史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草衣禪師와의 和韻詩<sup>92)</sup>도 있어 두터웠던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心齋集』에서도 역시 秋史와 교유한 선비들 중 시 분야에서는 梅溪를 꼽고 있어<sup>93)</sup> 그와 秋史의 관계가 단순한 교유

87) 문집에는<敬次李牧使源祚視諸生韻>(梅溪先生文集』, 27면)이라는 시도 있어 梅溪가 凝窩의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88)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秋史金正喜謫居大靜 公往從問業 秋史大加獎許 從遊多數 而待公獨異.

89) 『梅溪先生文集』, 9면.

90) 『梅溪先生文集』, 10면.

91) 『梅溪先生文集』, 10면.

92) <贈草衣禪師意恂>, 『梅溪先生文集』, 12면.

93) 金錫翼, 「破閑錄」, 『心齋集』(濟州文化. 1990), 320면.

의 차원을 넘어 그를 秋史의 학맥으로 포함시킴을 볼 수 있다. 梅溪가 秋史에게 받은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秋史가 제주도로 유배를 온 것은 梅溪가 17세 되던 해였다. 이제 막 학문에 뜻을 두고 정진할 때에 대학자 秋史를 만난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梅溪가 영주십경시를 품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梅溪의 영주십경 품제에 영향을 준 다른 하나는 당시 진경 문화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다. 梅溪는 향시에 합격하고 大科를 보기 위해서 상경하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그는 귀향한다. 비록 대과에는 합격을 못해서 귀향을 하지만, 그에게도 변화는 있었다. 우선 여러 차례 과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진경시대 문화를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화적 접촉은 주변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는 이러한 것을 시로 읊는다. 또한 본토를 오가면서 친분을 쌓은 襄庵, 栗下, 汝範, 蓮坡 등과의 교류로 후에 瀛洲十景詩같은 작품을 같이 화운하고,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秋史라는 대학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瀛洲十景集』<sup>94)</sup>에 나타난다. 이 시집에서는 문집에 실린 십경시 중 梅溪, 蓮坡, 襄庵, 汝範, 遇卿의 시, 無名氏의 영주십경시 그리고 임포의 西湖十景詩가 기록되어 있으며, 梅溪의 輓歌와 시 약간편이 실려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포의 西湖十景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임포의 서호십경은 蘇提春曉, 平湖秋月, 斷橋殘靈, 雷峰落照, 南屏晚鍾, 麴院風荷, 花巷觀魚, 柳浪聞鶯, 三潭印月, 雨峰插雲이고, 마지막에 西湖十景後題로 구성되어 있다. 임포의 십경시는 읊시로 되어 있고 後題는 절구로 되어 있다. 이것은 梅溪의 영주십경시와 똑같은 형식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영주십경의 유래에 대해 『心齋集』의 「海上逸史」에서는

金正喜 號秋史 又號阮堂 ... 憲宗朝 安置大靜縣 後學多從之遊 詩如李漢震.

94) 이 시집의 원본은 확인이 안되며, 光武 10년 丙午(1906)에 기록된 듯 하다. 連廈라는 이름이 시집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連廈가 소장자 인지 아니면 기록자 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梅溪의 시를 많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梅溪와 관계가 있는 인물인 듯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다.



십경이라 불리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근대의 것이다. 근세의 선배 李漢震이 고을 안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서 십경으로 나누고 거기 에다 네 운자의 시(律詩)를 지어 불러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니 이로 부터 이름난 승지가 되었다. 劉淡, 金亮洙, 李容植, 金昌鉉, 金桂斗, 金羲正과 같은 여러 선비들이 그의 시에 화답하여, 이로부터 온 나라에 향기 로운 이름이 퍼지고 곧 호평을 받았다. 지금의 안목으로 논할 것 같으면 뽑아 내어 다시 의론할 곳이 없지 않으나, 시인이 한때의 흥취를 일으켜 한 지방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 섬 은 넓은 바다에 버티어 서서 삼신산의 하나라고 일컬어 왔다. 그 가운데 기이한 경치와 아름다운 구역이 수십 곳 뿐만은 아닌데, 다만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그 아름다움을 아는 이가 없다. 만약 大賢이 큰 붓을 빌어 그 솜씨를 발휘하였다면 무이구곡이나 소상팔경이 이보다 나올 수 있겠 는가?<sup>95)</sup>

위 글에서는 이원조의 영주십경시를 비롯한 그 동안의 내력이 생략되 어, 제주 선비 梅溪에 의한 영주십경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원조가 목 사로 제주도에 부임한 것은 梅溪의 나이 십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원조 목 사의 시를 영주십경시의 효시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心齋는 梅溪의 것을 시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凝窩의 시가 병풍의 그림을 보며 지은 것이고, 또한 凝窩의 시에 화운한 작품이 없었던 반면, 梅溪의 시는 직접 느낀 영주 십경의 경치를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및 본토의 여러 문인들도 그의 시에 화운했고 이로 인해 영주십경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栗下의 경우 제주에 직접 와서 영주십경의 경치를 玩賞하고 제주의 문인들과 詩友를 맺 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sup>96)</sup>襄庵도 제주도에 직접 와서 지은 시가 남아 있

95) 金錫翼, 『海上逸史』, 『心齋集』, (濟州文化. 1990), 260면.

按十景之稱 非古而近矣 近世先輩李漢震 收拾一州勝概 分爲十景 皆首唱四韻 以證之 於是一時名勝如 劉淡·金亮洙·李容植·金昌鉉·金桂斗·金羲正諸公 繼以和之 自此馨播中外 遂得好評 而以今之眼目論之 不無選擇之可議處也 然 是 認時之托興紹介一方之形勝 夫豈偶然哉 本島砥柱大海 世所稱三神山之一也 其間 奇景勝道 不啻十數計 徒以僻在海外 世無由以知其勝者 若得大賢鉅筆 一徑發揮 則雖武夷之九曲 瀟湘八景 何以加此.

다.<sup>97)</sup> 본토 사람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영주십경과 영주십경시는 더욱 넓게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心齋 역시 영주십경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이 梅溪의 영주십경시이므로 이를 효시로 삼고 있다. 또한 위의 글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온 나라에 알리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품제의 精粗에 대해서 ‘지금의 안목으로 논할 것 같으면 뽑아 내어 다시 의론할 곳이 없지 아니하다.(今之眼目論之 不無選擇之可議處也)’라 하여 다소 유감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품제는 大賢鉅筆에 넘기는 겸손을 보였다.

그의 유감은 아마도 영주십경의 경치 중 山浦釣魚 때문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고기 낚는 모습을 풍류로 여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南九明의 <又補毛羅歌>에서는 바다에 암초가 많은 자연 조건과 어로 장비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바다 가운데 섬이면서도 제사용 海魚祭需가 부족할 정도였다. 또한 남구명 시의 후반부에서는 어민들의 세금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 있어<sup>98)</sup> 당시의 어로가 풍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心齋도 山浦釣魚에 대한 것만은 문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다소의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면에서 보면 梅溪의 영주십경은 일월, 사시, 제주의 경치, 제주의 풍물 순서로 되어 있다. 凝窩의 시가 사시, 일월, 풍물, 경치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보다 짜임새 있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 梅溪가 서경을 즐겨 읽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요전과 순전에서 천하를 바르게 하기 위해 日月과 四時를 정하고, 다시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바르게 했다는 것이 연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梅溪의 영주십경 배열은 凝窩의 것보다 더욱 치밀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의 생성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철학적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

96) <送李栗下歸金陵>, 『梅溪先生文集』, 67면.

97) <上巳後一日廬劉襄庵遊楮旨>, 『梅溪先生文集』, 7면.

98) 金永吉,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4쪽.

영주십경시는 제주의 비경을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

山立東頭不夜城 동쪽머리에 솟은 산이 불야성인데  
 扶桑曉色乍陰晴 해 돋는 곳 아침 빛은 흐린 듯 맑은 듯.  
 雲海海上三竿動 붉은 구름 덮힌 바다 위에 돛단배 오가고  
 煙翠人間九點生 마을에선 아침 연기 파랗게 솟아라.  
 龍忽天門開燭眼 용이 눈을 부릅뜬 듯 천문이 열리고  
 鷄先桃岵送金聲 복숭아꽃 핀 마을에선 닭 울음소리 들린다.  
 一輪宛轉升黃道 해가 둥그렇게 굴러 황도에 오르면  
 萬國乾坤仰大明 천지가 환히 밝아 모두 다 우러러 보네.<sup>99)</sup>

天藏晚雪護澄潭 늦게까지 남은 눈 쌓아 맑은 못을 감싸고  
 白玉崢嶸碧玉涵 우뚝한 하얀 봉우리 푸른 못에 잠겨 있네.  
 出洞朝雲無影吐 골짜기엔 아침 구름 흔적없이 피어나고  
 穿林曉月有情含 숲을 뚫은 새벽 달빛 다정함 머금고 있네.  
 寒呵鏡面微糊粉 차가운 수면은 얇게 분 바른 듯  
 春透屏間半畫藍 봄이 스민 절벽은 반쯤은 파란기운.  
 何處吹簫仙指冷 어디인가? 피리부는 신선이 차가운 곳 가르키며  
 騎來雙鹿飲清甘 사슴 타고 맑고 단 물을 마신 곳이.<sup>100)</sup>

兩兩輕槎出釣魚 가벼운 뚝지어 고기 잡으러 가는데  
 海天一色鏡中虛 바다는 하늘을 거울로 비춘 듯 하네.  
 落花飛絮春和後 꽃 지며 버들 솜 나는 봄철에  
 綠水青山雨歇初 비 방금 그치니 물 맑고 산도 푸르다.  
 何意煙雲隨往返 구름은 무슨 일로 따라 오가는가?  
 多情鷗鷺忘親疎 다정한 갈매기는 친소를 잊었구나.  
 如今此景輸高手 지금의 이 경치를 좋은 솜씨에 맡긴다면

99) <城山出日>, 『梅溪先生文集』, 68면.

100) <鹿潭晚雪>, 『梅溪先生文集』, 82면.

應作人間未見書 응당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글일 것을.<sup>101)</sup>

위 시는 梅溪의 영주십경시의 일부이다. 전반부는 제주 자연을 되도록 자세히 묘사하면서도 신비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梅溪는 제주인으로 제주의 자연에 대한 상당한 내적 긍지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마음이 경치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梅溪 자신의 느낌을 풀어놓고 있다. <城山出日>에서는 ‘천지가 환히 밝아 모두 다 우러러본다(萬國乾坤仰大明)’하여 해가 떠오르는 풍경 속에서 대명세계를 꿈꾸는 그의 이상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다. <鹿潭晚雪>의 후반부는 백록담에 얽힌 전설이 소개되면서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寒’이나 ‘藍’은 경치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다. <山浦釣魚>의 후반부는 자연 친화와 합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글재주로는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보다 더 훌륭한 문인의 글을 기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梅溪의 <題洲十景後>에서는 영주십경시의 창작동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詩成十景景多疑 승경을 헤아려서 십경시를 지었지만  
只畫葫蘆未畫奇 다만 호리병을 그렸을 뿐 기경은 못 그렸네.  
奇在世人難見處 기이한 모습 세상 사람들 보기 어려운 경치러니  
人稱別景畫於詩 사람들이 별경이라 하는 걸 시로 그렸네.<sup>102)</sup>

위 시에서는 제주의 십경을 고르고 이를 감상하여 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껍데기만을 그린 듯 하다는 겸손함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 대한 긍지가 나타나 있다. 海隱의 시에서도 역시 “우리 고을의 십경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니, 지나는 곳마다 빼어난 경치일세.(吾州十景不須疑 歷歷看過絕絕奇)”<sup>103)</sup>라고 하여 영주십경을 지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자긍심을 쉽게

101) <山浦釣魚>, 『梅溪先生文集』, 91면.

102) <題瀛洲十景後>, 『梅溪先生文集』, 97면.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궁지는 제주 사람이 제주의 경치에 대해 읊고 노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위 시에서는 제주가 다른 지방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를 통해 제주의 경치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에도 나타난다. 栗下의 “몹시 고향 가서 자랑할 날을 기다려지네”<sup>104)</sup>이나, 汝範의 “그 중에 담긴 참된 모습 알고자 하니 다른 날에 십경을 찾아서 다시 시를 지으리라.”<sup>105)</sup>의 글, 그리고 襄庵의 “옛날 들은 영주 소문 과연 그런가 했더니, 이제 영주를 보니 최고의 절승이로다.”<sup>106)</sup>의 구절이 그것이다. 위의 구절에서는 제주의 경치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고, 이들과 함께 시를 지은 梅溪의 제주 자연에 대한 애착과 궁지를 알 만하다.

또한, 이 시에서는 영주십경이 자신이 선별하여 독창적으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경이라고 하는 것을 시로 그렸네(人稱別景畫於詩)’라고 하여 예전부터 아름답다고 일컬어진 경치를 梅溪 자신이 두루 편람하여 정리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梅溪가 영주십경에 대해 품제한 후에 계속하여 다른 시인들의 시가 이어진다. 石湖 高永旰의 십경시가 『諸家吟咏集』에 전하는데 석호의 십경시는 스승인 梅溪의 십경시에 화운한 작품이다. 이 밖에, 화답은 아니지만 曹名窩(名未詳), 吳毅淸, 愼花庵 등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李在守 實記』<sup>107)</sup>에도 가사의 형식으로 <瀛洲十景歌>가 전해지고 있다.

梅溪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기존에 來島한 문인들이 제주의 모습을 척박하게 표현한 것과는 상반된 성격이다. 남구명의 경우 제주의 나쁜 날씨와 심한 풍랑, 척박한 토지와 낙후된 농업기술, 잦은 왜구의 침략 등으로 어려운 제주인의 삶을 읊고 있다.<sup>108)</sup> 이러한 것은 모두 제

103) 『梅溪先生文集』, 97면.

104) <題瀛洲十景後>, 『梅溪先生文集』, 97면. 第待誇張歸北日.

105) <題瀛洲十景後>, 『梅溪先生文集』, 98면. 欲識箇中眞影子 登臨他日更題詩.

106) <題瀛洲十景後>, 『梅溪先生文集』, 98면. 瀛洲昔聞果然疑 今見瀛洲最絕奇.

107) 李順玉, 『李在守實記』(中島文華堂, 1932)

108) 金永吉,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8-92쪽.

주의 척박한 환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梅溪 산문 「鄭牧使祭海神壇文」,<sup>109)</sup> 「貢馬差員祭海神文」,<sup>110)</sup> 「山川壇祈雨祭文」,<sup>111)</sup> 「有蟲災祭社土文」,<sup>112)</sup> 「里社醮祭文」,<sup>113)</sup> 「邊雅之協衣冠葬時其大親慰安祭文」<sup>114)</sup>에서는 모두 제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거친 바다와 척박한 토지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삶에 대한 시는 <採藻><sup>115)</sup> 한 편 뿐이다. 이 시도 고기잡고 농사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역시 제주의 척박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수확 또한 많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그가 제주인으로 제주의 경치를 읊으면서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며, 특히 영주십경시의 경우는 외부에 제주의 비경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梅溪는 淸陰, 白湖, 瓶窩, 石北 등 전대 문인들이 절찬한 제주의 승지를 편람하고 일월의 운행(出日, 落照)에다 사시의 절경과 제주의 특이한 경관인 바위(奇巖), 窟穴, 浦口, 屯馬를 배열하여 對를 갖추어 십경을 설정하였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일월-사시-풍물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차례를 바꾸면 구성의 연계성이 약해지고, 장소를 바꾸면 對에 배치되게 되어 있어 그 느낌은 반감이 되어 버린다. 그가 이렇게 제주인으로 제주의 자연에 관심을 갖고 영주십경시를 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대학자였던 추사와의 교류와 과거를 보면서 느낀 당시 진경 시대의 문화적 풍토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간접적이지만 임포의 西湖十景詩의 영향도 받은 듯하다. 凝窩의 십경 품제가 梅溪의 십경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도 가볍게 넘기지 못할 사실이다.

---

109) 『梅溪先生文集』, 129면.

110) 『梅溪先生文集』, 130면.

111) 『梅溪先生文集』, 131면.

112) 『梅溪先生文集』, 132면.

113) 『梅溪先生文集』, 132면.

114) 『梅溪先生文集』, 133면.

115) 『梅溪先生文集』, 11면.

## IV. 結 論

지금까지 梅溪 李漢雨의 시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梅溪가 살았던 순조, 헌종, 철종 대는 밖으로 서구 열강들이 동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고, 안으로 조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三政이 무너지면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시기였다. 삼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은 진주 민란이나 동학 봉기와 같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철종은 진주 민란을 계기로 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국가의 기강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지고 있었다.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하여 나라를 경영해 나갔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 유교 중심의 가치관도 점차 무너진다.

하지만, 梅溪의 경우는 불안한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인다. 이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에게 원칙과 규범을 중요시하는 강직한 성격을 형성하게 한다. 유교 가치관이 무너지는 사회 풍토 속에서도 梅溪가 유교 중심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대학자 추사와의 만남은 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욱 詩才를 다듬게 된다.

그 후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고 대과에 도전한다. 그의 과거 도전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가 과거에 응시하게 된 동기는 몇 대째 벼슬이 없는 집안 상황과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제주를 떠나 낯선 땅 서울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향수였다. 하지만,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왔기에 희망적이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생활 자세는 그의 시에 그대로 투영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방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면서 가장 빨리 부패한 곳이 관리 등용의 장인 과거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응시했던 것은 관리가 되어야만 지금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대과에 도전하면서 합격의 여부는 천명에 맡기고 자신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한 그였지만, 과거 실패는 충격이었다. 과거를 포기하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그의 심정은 과거 실패로 인한 자괴감과 불만에 휩싸인다. 그의 귀향은 부패한 세상과의 단절이며 동시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선 梅溪의 수신 의지이다.

귀향 후에 나타나는 시의 성격은 과거에 대해 버리지 못한 미련과 아쉬움이다. 이러한 감정은 제주로 귀향한 그를 조금도 쉴 새 없이 괴롭힌다. 비록 몸은 자연에 있지만, 마음은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은 자연을 관조하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직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양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자연은 항상 옳고 바르며 자연을 본받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성품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천명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었으며, 천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수양이 필요했다.

梅溪에게 천명 인식은 처음에는 과거 낙방이라는 어두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지만, 결국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성적 통찰이 요구되었고 梅溪는 독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 독서는 자아를 더욱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한다. 이러한 평온함은 내면적인 자아 실현을 의미하며 결국 탈속의 심사를 느끼게 한다. 즉, 道의 구현체인 자연과 합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항에서는 梅溪가 제주 자연을 시화한 작품인 瀛洲十景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주십경 개별의 경치는 梅溪 이전부터 제주에 왔던 문인들에 의해 많이 노래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凝窩 이원조의 <瀛洲十景題畫屏>에서 한번 변화 한다. 그의 십경시는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었고, 시의 對에 주의하면서 지어졌다. 그의 십경시가 병풍의 그림을 보고 지었던 것으로 볼 때 영주십경은 이미 제주의 경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영주십경시는 梅溪의 영주십경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후학이었던 梅溪는 凝窩 십경시의 제목과 순서를 바꾸었고, 이것은 외지인이 십경을 읊은 것에 대한 불만족과 제주인으로서 제주 자연에 대해 가진 긍지 때문이었다. 梅溪의 영주십경시는 凝窩의 십경시 구성에 비해 일월-사시-풍물의 순서로 구성하여 자연의 생성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까지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영주십경을 지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추사와의 만남, 여러 차례의 科擧에서 습득한 진경 문화의 영향이 있었고,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임포의 서호십경시의 영향도 볼 수 있었다. 그의 <瀛洲十景後>에서는 영주십경을 지은 창작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제주의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경치와 자긍심이 엿보이고, 이러한 것은 외부 사람들의 눈에도 신비하면서도 정겨운 모습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梅溪의 문학을 통해서 제주 지식인들의 의식이 비록 유교의 가치관이 무너져 가는 시기였지만, 본토 士林들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방언, 민속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본토와는 다른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이러한 것은 일반 백성들의 측면이고, 지식층에서는 유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변방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토와 다른 소외감이나, 주변성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의 풍물과 자연을 알리고 싶어하는 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梅溪의 문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梅溪 전후의 제주 문학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선행 연구가 없어 평가에 있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지금까지 제주 한문학에 대해서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은 자료의 부족함에도 기인하지만, 지역 문학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이 더욱 큰 것이다. 지방 문학의 연속성이나, 지방의 정신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梅溪를 제외한 石湖와 같은 梅溪 제자의 시나 梅溪의 학맥 관계를 연결하는 農隱, 水隱 등의 연구와 검토, 그 밖에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유배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등도 흥미 있는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자료>

高永昕, 『石湖吟咏集』, 필사본, 연대미상.

金錫翼, 『心齋集』, 濟州文化, 1990.

金亮洙, 『蘭谷詩集』.

金舜衡, 『濃隱詩集』, 필사본, 연대미상

金熙敦, 『水隱詩集』, 필사본, 연대미상

李源祚, 『耽羅錄』, 탐라문화연구총서(3), 1989.

———, 『凝窩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한국문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1991.

李漢雨, 『梅溪先生文集』, 필사본.

『瀛洲十景詩』, 필사본. 1906.

『諸家吟咏集』, 필사본, 1907.

『全州李氏世譜』, 卷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書經

詩經

論語

孟子

楚辭

### <논문 / 단행본>

강성능,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고정우,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5, 탐구당, 1983.

- 김경희,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金能根, 『儒敎의 天사상』,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
- 김상조, 『松江 鄭徹研究-삶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영길,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용변, 『韓國近代農業史研究』상, 일조각, 1984.
- 김홍규, 『〈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性格』,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 노인숙, 『勉庵 崔益鉉 漢詩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 방정옥, 『勉庵 崔益鉉 文學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15호, 1995.
- 손오규,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손오규,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출판부, 1994.
- 신오현, 『인간의 본질』, 형설출판사, 1989.
-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 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여기현, 『江湖認識의 한 樣相』, 『泮橋語文研究』1집,泮橋語文研究會, 1988.
- 오문복, 『瀛洲十景 小考』, 『제주도』 90호, 1991.
- 오문복 편, 『瀛洲風雅』, 濟州文化, 1989.
- 오의남, 『尤庵 宋時烈의 詩文學攷』,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우응순, 『윤선도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87.
- 유승국 외, 『孝思想과 未來社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李順玉, 『李在守實記』, 中島文華堂, 1932.
-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 이택후, 『華夏美學』, 동문선, 1994.
- 李漢雨, 『梅溪先生文集』, 金永吉 譯, 濟州文化, 1998.
- 정병욱, 『韓國古典詩歌論』, 신구문화사, 1991.
- 「濟州道 典籍類綜合調查報告」, 『탐라문화』 3호, 1983.
- 진순, 『北溪字義』, 김영민역, 예문서원, 1995.
- 최완수 외, 『진경시대』 1·2, 돌베개, 1998.
-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 최진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88.
- 한경희, 「濟州島風土文學研究-조선시대 래도문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허균,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 대한교과서, 1997.
-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月印, 1999.
- 허철희, 「勉庵 崔益鉉 詩文學攷」,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Abstract

The Poetic Literature of Mae-gae Lee, Han-woo

Kim, Sae-mi-o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oetic world of Mae-gae Lee, Han-woo born in Sin-Chon, Cheju do.

In the first chapter, I established the text of 『An Anthology of Mae-gae』 and explained the structure of the anthology.

In the second chapter, I studied the life of Mae-gae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those days. There were abruptly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at the reign of Soonjo, Hunjong, and Chuljong when Mae-gae lived, and at the same time the Confucianism centered ideas also changed. However, Mae-gae was raised in the mood of Confucianism and such a family custom could make him to study. In especially, his study became more firmly since he had met Choo-sa, and he passed the local public officials examinations, several times and then he challenged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examination. But finally he failed and went back to Che-ju do. Since he had returned, he reflected his life, improving himself, and recovered his own self.

In the third chapter, I studied the poetic world of Mae-gae by dividing 4 paragraph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econd chapter.

In the first paragraph, 'the fail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examination and the conflicts', I studied the poetry showed the challenge to the examination and the conflicts due to the failure. I inquired into the process from applying for the examination to realize his own will, failing, to returning to Che-ju.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In the second paragraph, 'the perception of the heaven's will and the conversion to the nature', I looked into the state of Mae-gae failed to the examination and returned to Che-ju. To him, the heaven's will was the moral obligations to get over the depressed emotion, his failure in the examination, but that was shifted to the direction of conquering the trials gradually and finding his own self in the nature. Also, I looked into the poetry showed that he recovered balance with conversing to the nature.

In the third paragraph, 'the will for improving himself and transcendence of the world', I studied the process of his conquest of the conflicts. When he came back to Che-ju, he suffered from the anguish and regret for the examination. Attributing everything to the heaven's will and conversing to the nature, however, he recovered his own self. His conquest of the conflicts was began by the reading. I studied that he got over the trials by the rational way of the reading, not just an emotional conquest, and looked into the poetry in that he dismissed the futile desire in the world and recovered his own self.

In the last fourth paragraph, 'the composition in the verse of the nature of Che-ju', I studied the history of the poetry, the motive of the creation, and the affective relationship around the poetry of the ten landscapes in Che-ju composed by several classical scholars including Mae-gae, which was thought as the works of Mae-gae in his later years.

I could recognized that the poetry of Mae-gae became different in character at the point of time when he failed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examination. The first paragraph was the conflicting cares of the failure in the examination,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paragraphs were the aspect of the conquest of these conflicts. The last fourth paragraph was the interesting in the nature of Che-ju, and I could understand as the same context, since it was his affection for the circumstances.